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김영현 문학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변 하 연

김영현 문학 연구

지도교수 손 유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변 하 연

변하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영현의 문학을 읽는 새로운 독법으로서 ‘고문 피해자의 내면’과 ‘취약성의 윤리’라는 틀을 제안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김영현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목은 극히 한정적이다. 이른바 ‘김영현 논쟁’이 바로 그것으로, 해당 논쟁은 다가오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80년대와의 분리를 통해 90년대 문학을 새롭게 의미화하려는 비평적 욕망으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새 시대를 열어젖힐 전도유망한 문학으로 호명된 김영현의 문학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문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 논문은 그 까닭을 김영현의 문학이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과 ‘진정성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주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대신 김영현의 소설을 ‘고문 피해자의 내면’이라는 렌즈로 읽어낸다면, 그의 문학은 ‘취약성의 윤리’와 관련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글에서 ‘취약성’이란 주디스 버틀러의 사유에서 참고한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언제든지 상처 입고 훼손당할 수 있는 ‘몸’과 관련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의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은 취약성과 관련한 일종의 원체험에 해당하며, 이 원체험은 그의 문학 곳곳에 여러 흔적들을 남겨 놓았다. 2장에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좇아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2장 1절에서는 ‘감옥 안’에서의 고통을 생생히 묘사한 「벌레」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작품은 김영현의 문학 세계를 집약하고 있는 근원적인 텍스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지대로 추락한 ‘벌거벗은 생명’을 등장시켜 감옥 안에서 육체적 고통이 해체되어가는 ‘파괴(당)하기’ 과정과 이 고통의 경험을 글로 다시 써 내려가는 ‘창조하기’ 과정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김영현에게 있어 소설 쓰기란 ‘말할 수 없음’과 ‘말할 수 있음’ 사이에서 증언을 이어나가는 윤리적 실천이자 ‘파괴(당)하기’의 과정을 뒤집음으로써 ‘창조하기’를 복원시키는 부단한 수행임을 암시한다.

2장 2절에서는 그러한 실천과 수행의 일환으로서 ‘감옥 밖’으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고문 피해자 인물 유형을 그린 소설들을 살핀다. 특히 이들이 보이는 감옥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에 주목해 그와 같은 심리의 원인을 추적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들의 저작을 경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영현의 소설 속 고문 피해자 인물들이 보여주는 양가적 태도는 기실 수용소 또는 감옥에서 나온 뒤 겪게 되는 두 가지 상실, 즉 이상의 상실과 타인의 죽음에서 기인한 또 다른 고통의 표현일 뿐임을 내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위와 같은 고통의 경험이 김영현의 소설에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 즉 버틀러적 의미에서의 ‘취약성’의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그 일차적 조건으로서의 ‘머물름’의 태도가 나타난 김영현의 소설들을 살핀다. 김영현의 소설 속 인물들은 상실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움의 정동은 김영현의 소설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역동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실의 슬픔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자 하는 자세는 ‘취약성의 윤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을 반복해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김영현의 태도는 그의 문학에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3장 2절과 3절에서는 김영현의 소설에서 ‘취약성의 윤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 2절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일한 주체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저항의 가능성을 길어낸 김영현의 소설들이 폭력적 동일성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자기동일성의 허상을 폭로한다는 것을 짚어내고자 한다. 이처럼 자기동일성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것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취약성의 윤리’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끝으로 3장 3절에서는 김영현은 ‘죽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지닌 작가이며, 그의 소설은 ‘애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김영현의 소설이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폭로하는 데에서 출발해 ‘애도의 정치’를 향해 차츰차츰 나아간 과정을 살필 것이다. ‘취약성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애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평등한 애도 가치의 확립을 통해 취약성(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비폭력적인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은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취약성’에의 예민한 감각을 지닐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그의 문학에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의 소설이 ‘운동권’의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넘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김영현의 문학을 ‘취약성’의 개념으로 다시 읽어내는 것은 김영현의 ‘고문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인바, 김영현 논쟁이 촉발된 이후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던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이라는 틀을 탈피하는 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영현의 문학을 ‘자유주의 진영 대 민족주의 진영’, ‘1980년대 문학 대 1990년대 문학’이라는 유구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난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김영현의 문학은 도덕적 당위를 지향하는 공적 지평에서 폐쇄적인 내면의 공간으로 ‘후퇴’했거나 억압적인 공적 지평에서 자유로운 내면의 공간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특히 ‘고문 피해자의 내면’이 지닌 ‘취약성’에의 민감한 감수성에서 말미암아 공적 지평으로 나아간 문학인 까닭이다.

주요어 : 김영현, 김영현 논쟁, 1980년대 문학, 1990년대 문학, 내면성, 고문 피해자, 감옥, 취약성의 윤리, 상실의 슬픔, 동일성의 폭력, 애도
학 번 : 2021-28736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1.2. 연구의 시각	11
2. 고문 피해자의 복합적인 내면	29
2.1. 파괴의 고통과 창조로의 전화	29
2.2. 감옥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그 실체	38
3. ‘취약성’의 윤리적 가능성	55
3.1. 상실의 슬픔 안에 머물기	55
3.2. 폭력적 동일성에 균열 내기	67
3.3. 죽음에 대한 감수성과 애도의 문제	81
4. 결론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3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984년 『창작과비평』 14인 신작 소설집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 건만』에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김영현의 이름이 우리 문학사에서 거론되는 대목은 극히 한정적이다. 이른바 ‘김영현 논쟁’이 바로 그것으로, 해당 논쟁은 그 당시 신진문학평론가였던 권성우가 쓴 두 편의 글, 「어느 신진소설가의 최근작에 대한 단상」(『문학정신』, 1990.1)과 「베를린·전노협, 그리고 김영현」(『문학과사회』, 1990.2)에 정남영이 비판을 가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 두 편의 글에서 권성우는 “단절의 논리”¹⁾에 입각하여, 민중문학·민족문학으로 표상되는 ‘80년대적 문학’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이제 막 움트고 있는 90년대 문학을 ‘새로운 것’으로 의미화한다. 그렇다면 이때 90년대적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터인데, 권성우에 따르면 그것은 ‘구체성’, ‘일상성’,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반대편에는 80년대를 지배했던 ‘당파성’, ‘총체성’, ‘객관성’이 놓여 있다.²⁾ 이는 90년대 문학이 “화석화된 이념”의 족쇄에서 풀려나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³⁾ 권성우가 새 시대 새로운 문학의 대표 주자로 김영현

1) 권성우, 「베를린·전노협, 그리고 김영현」, 『문학과사회』, 1990.2, 256면. 권성우는 90년대가 80년대와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하며 세계사적으로는 동구 사회의 변화가 절정에 달한 베를린 장벽 붕괴에, 국내에서는 공교롭게도 하루 간격을 두고 이뤄진 보수 대연합과 전노협 결성에 주목한다. 그리고는 90년대의 한국 사회는 ‘보수 대연합’과 ‘전노협’이 상징하는 대립적 정치 구도에 의해 추동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때 전자는 ‘보수 대연합-노동자의 중간 계층화-중진 자본주의론-점진적 개혁’으로, 후자는 ‘전노협-노동자의 혁명적 열정-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근본적 혁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른다. 권성우는 이 중에서도 중진 자본주의론에 의거한 점진적 개혁론 쪽으로 한국 사회가 기울어져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90년대에 사회 혁명이 실현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안병직의 고통스러운, 동시에 현실적인 전망에 동의한다”(260면)고 밝히고 있다. 중진자본주의론을 내세운 안병직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김기천, 「90년대를 전망한다: 운동권④」, 조선일보, 1990.01.17.) 참조.

2) 위의 글, 261면.

3) 위의 글, 262면.

을 지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그가 보기에 김영현의 소설에는 “진보적인 지식인이 역사나 사회와 만나면서 형성되는 특유한 내면 풍경이나 철저한 자기반성이 설득력 있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진보적 지식인의 마음의 무늬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선형적이며 도식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상사의 미세한 풍경들 속에 깊숙이 저장하여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감동을 자아낸다.⁴⁾ 즉, 김영현의 소설은 진보적 지식인의 ‘복합적인’ 내면을 ‘일상사’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80년대 문학과와의 변별점을 획득하기에 김영현은 마땅히 “90년대 문학의 징후”⁵⁾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로 주목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남영은 「김영현 소설은 남한 문예운동의 미래인가, 과거인가」(『노동해방문학』, 1990.6)라는 글을 통해 권성우의 견해에 전면으로 맞선다. 그는 김영현 소설에 대한 권성우의 고평을 “자유주의적 해석”⁶⁾이라 비판하는 동시에 김영현 소설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그는 권성우가 강조하는 ‘일상사’의 함의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정남영은 김영현의 소설들은 결코 일상적인 경험만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⁷⁾, 권성우가 말하는 ‘일상사’란 말 그대로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투쟁과 혁명을 한편에 놓았을 때에 다른 한편에 놓이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정남영에 따르면 김영현의 소설에서 이는 대개 “엉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상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김영현 소설의 이러한 요소들은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에둘러 가는 것”에 불과하다.⁹⁾ 다음으로 그는 현실주의적 전형과 자연주의적 전형을 구분 짓고¹⁰⁾, 김영현의 소설은 자연

4) 권성우, 「어느 신진소설가의 최근작에 대한 단상」, 『문학정신』, 1990.1, 388면.

5) 권성우(1990.2), 앞의 글, 263면.

6) 정남영, 「김영현 소설은 남한 문예운동의 미래인가, 과거인가」, 『노동해방문학』, 1990.6, 143면.

7) 예컨대, 「벌레」는 감옥에 갇힌 경험을, 「멀고 먼 해후」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을 그리고 있으며,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는 고문으로 인해 정신 이상이 생긴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8) 위의 글, 155면.

9) 위의 글, 158-159면.

10) 자연주의적 전형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면, 현실주의적 전형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중의 앞에 선 전위적인 인물들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다. (위의 글, 162면.)

주의적 경향을 지닐뿐더러, 그 경향은 작가가 중요한 사건들은 단지 배경이나 계기로만 처리하고 사소한 세부들을 구태여 포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한다.¹¹⁾ 정남영이 보기에 이는 그 ‘중요한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희석시키는 데에 일조할 뿐이다. 끝으로 정남영은 스스로 ‘싸움꾼의 자세’를 견지한다고 밝힌¹²⁾ 김영현에게 진정한 ‘싸움꾼’으로 거듭나기를, 즉 “노동해방작가로서의 길”¹³⁾을 걸어갈 것을 요청한다.

권성우는 이에 대응해 「김영현의 소설과 정남영의 비평문에 대한 열네 가지의 단상」(『문학정신』, 1990.9)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권성우는 앞선 입장을 유지한 채 자신의 비평적 입각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우선 사상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저마다의 사상적 지향을 보이기 마련인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각각에 걸맞은 정확한 ‘비평적 메스’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파적 현실주의의 틀을 내세워 김영현의 문학을 재단하고자 하는 정남영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권성우에 따르면 “정남영에게는 현실주의의 일탈이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¹⁴⁾이야말로 오히려 김영현의 문학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한번 “진보적인 지식인의 섬세한 내면”¹⁵⁾으로 요약되며, 그에 따라 진솔한 고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가는 “진실을 갈구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권성우의 주장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¹⁶⁾ 이러한 시각 아래 권성우는 정남영이 핵심 주제를 흐리게 만드는 사소한 세부라고 비판했던 것들, 예컨대 「멀고 먼 해후」의 주인공이 보이는 타자수를 향한 성욕, 「벌레」의 카프카에 관

11) 위의 글, 164면.

12) “마침내 나는 소설 쓰기는 두 가지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하나는 싸움꾼의 자세고 다른 하나는 구도자의 자세이다. 싸움꾼의 자세는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그러한 문제를 작품 속에 투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구도자의 자세는 글 쓰는 작업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철학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김영현, 「〈후기〉 소설가, 싸움꾼과 구도자」,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화사, 1990, 301면.)

13) 정남영(1990.6), 앞의 글, 169면.

14) 권성우, 「김영현의 소설과 정남영의 비평문에 대한 열네 가지의 단상」, 『문학정신』, 1990.9, 47면.

15) 위의 글, 55면.

16) 위의 글, 52-53면.

한 에피소드,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의 공룡에 대한 사색 등을 높이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80년대의 민중문학이 결여하고 있었던 “혁명과 관계된 인간의 다양한 심리와 욕망의 풍경”¹⁷⁾을 보여주는 소설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김영현은 앞으로도 ‘진보적인 지식인의 내면’을 탁월하게 형상화할 수 있도록 작가 자신의 체험을 보다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 평문의 요지이다.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외에도 다양한 필자들이 가세했으며,¹⁸⁾ 김영현 역시 몇 편의 글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¹⁹⁾ 이 일련의 글들에서 김영현은 일관되게 “모든 관념적, 기계론적, 목적론적 문학”과 ‘자유주의 문학’ 모두와 거리를 두고서 “진정한 현실주의 문학”을 탄생시키기 위한 민족문학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중문학 평단에 대한 전면비판」(『말』, 1990.11.)에서 확인된다. 해당 글에서 김영현은 차주옥의 장편 『함께 가자 우리』에 대한 과소평가, 안재성의 장편 『파업』에 대한 지나친 찬사, 박노해를 향한 맹목적인 옹호 등의 현상을 제시하면서 그 기저에 깔린 진영 논리는 “민중문학 진영의 경화, 황폐화, 고립화”²¹⁾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김영현에 따르면 이는 80년대 후반의 민족문학 논쟁 내에서 “각 정파 간의 이론 투쟁이 갈수록 경화되고 배타적으로 되어”²²⁾감에 따라 당파성과 파쟁성이 심화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결과 민족문학 진영에는 자기 정파의 지향에 맞는 작품들에는 과대평가를 내리고, 그와 어긋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풍조가 횡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현은 이러한 “편식과 예단”을 극복하고 “평론과

17) 위의 글, 53면.

18) 대표적으로 홍정선, 「역사의 안과 밖으로 열린 소설 -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현대소설』, 1990.6; 우한용, 「소설의 영토와 감수성의 확장」, 『세계와 나』, 1990.6; 한기, 「『떨고 먼 해후』는 왜 좋은가」, 『세계의문학』, 1990.8; 신승엽,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소설화와 현실주의 - 김영현론」, 『문예중앙』, 1990.9;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집」, 『창작과비평』, 1990.9 등이 있다.

19) 김영현, 「변혁의 싹 품은 현실주의를 위하여」, 『한겨레』, 1990.8.25; 김영현, 「문학은 무기일 수도 유희일 수도 없다」, 『신동아』, 1990.10; 김영현, 「민중문학 평단에 대한 전면비판」, 『말』, 1990.11.

20) 김영현, 「변혁의 싹 품은 현실주의를 위하여」, 『한겨레』, 1990.8.25.

21) 김영현, 「민중문학 평단에 대한 전면비판」, 『말』, 1990.11. 195면.

22) 위의 글, 196면.

창작과 독자의 창조적 긴장”을 이뤄야만 “민족문학에 탄력과 활기”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이를 계기로 논쟁의 구도는 ‘권성우 대 정남영’에서 ‘김영현 대 정남영’으로 옮겨간다. 논쟁 초기에만 해도 김영현을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구분 짓고²⁴⁾, 그에게서 가능성을 확인했던²⁵⁾ 정남영은 「김영현의 문학관을 전면비판한다」(『말』, 1990.12.)에 이르러 “김영현은 실상은 자유주의와의 연합전선을 통해 민중문학으로부터 그 변혁의 혼을 앗아가려 하는 것”²⁶⁾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을 가한다. 이는 “사상에 중립이란 없다”²⁷⁾라는 사유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정남영은 ‘적/아군’이라는 철저한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해(김영현이 내세우는) “자유주의 문학과 기계론적 현실주의를 모두 극복하고 탄생한다는 ‘진정한 현실주의’의 선택”은 결국 “민중문학으로부터의 이반”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²⁸⁾

뒤이어 정남영은 「‘김영현 논쟁’의 결론 - 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중문학의 진로」(『노동해방문학』, 1991.1)를 발표하여 논쟁이 전개되는 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몇 가지 비판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수행하는 한편²⁹⁾, 김영현이 무당파적인 포즈를 취하며 ‘진정한 현실주의’를 내세우는 것에 재

23) 위의 글, 197면.

24) 정남영은 김영현의 「저 깊푸른 강」이 한국일보 문학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김영현 자신은 결코 자유주의자가 아닌데도” 그의 수상을 다룬 기사들이 그를 자유주의자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정남영(1990.6), 앞의 글, 142면.)

25) 정남영은 권성우가 비판한 바 있는 김영현의 「달맞이꽃」과 「목격자」에서 오히려 문학적 가능성을 길어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대목이 주목을 요한다.

“「달맞이꽃」과 「목격자」는 권성우도 옳게 지적하고 있는 약점들—이것은 그의 다른 소설들에도 똑같이 들어 있음은 간과되고 있지만—이 온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우가 아쉬워하는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소설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정남영(1990.6), 앞의 글, 166면, 밑줄은 인용자)

이때 ‘작가의 내면’이란 물론 권성우가 거듭 강조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을 뜻한다.

26) 정남영, 「김영현의 문학관을 전면비판한다」, 『말』, 1990.12, 195면.

27) 위의 글, 같은 면.

28) 위의 글, 같은 면.

29) 특히 ①현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도식을 따른다는 비판, ②소채주의자라는 비판, ③문학으로부터 내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④과정상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 ⑤개성의 관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⑥속류 사회학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정남영은 철저히 올바른 (민중)문학은 민중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논지를 펼쳐 나간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현 논쟁’의 결론 - 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중문학의 진로」, 『노동해방문학』, 1991.1, 372-387면 참조.

차 의혹을 표한다. 정남영에 따르면 김영현은 “민중문학진영 내에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적 입장과 상당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오히려 “권성우보다도 민중문학에 더 해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³⁰⁾ 이 글을 기점으로 일 년여 동안 이어진 김영현 논쟁은 마침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로부터 약 9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영현은 해당 논쟁을 돌아보며 “김영현 논쟁”은 80년대적 성격으로부터 90년대적 성격으로 넘어가는 사회현상의 반영이며,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80년대적 대답에서 90년대적 대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쓴다.³¹⁾ 그중 80년대적 대답은 정남영에 의해, 90년대적 대답은 권성우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절의 논리’를 내세운 권성우의 당대 진단은 상당히 정확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학사가 증명하다시피 이후 1990년대 한국 문학장은 실제로 “80년대에 대한 청산과 단절의 감각”³²⁾ 아래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문학과 90년대 문학을 구분 짓는 수사로 흔히 활용되곤 하는 ‘공동체/개인’, ‘이념/욕망’, ‘광장/밀실’, ‘전장/시장’³³⁾과 같은 이분법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권성우가 ‘90년대적 문학’의 성격을 규정 짓는 데에 있어 줄기차게 내세운 ‘내면(성)’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 내면성이란 “1980년대 문학의 운동성과 이념성”³⁴⁾의 정반대 편에 놓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80년대로부터의 탈각을 이뤄낸 90년대 문학은 당대의 국내외적 변화와 맞물려 ‘탈이념 시대의 문학’ 나아가 ‘탈정치의 시대’의 문학으로까지 의미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등장한 소설들은 흔히 ‘후일담 소설’로 묶여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행기를 넘어 완전히 새 시대에 진입하고 나면, 그러한 과도

30) 위의 글, 371면.

31) 김영현, 「다시 ‘김영현 논쟁’을 돌아보며」, 『오늘의 문예비평』, 35, 1999.12, 55면.

32) 황중연, 진정석, 김동식, 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9면.

33)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81, 2018, 227면.

34)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549면.

기적 문학은 아직도 이전 시대의 것들에 매달려 있다는 까닭에 청산의 대상으로 탈바꿈되고 만다. 실제로 김영현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한 ‘후일담 소설’ 작가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청산되어야 할 대상”처럼 여겨지며 한국 문학장 내에서 그 존재가 지워져 버린 데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³⁵⁾

요컨대, 김영현의 문학은 90년대 벽두에는 새 시대를 열어젖힐 전도유망한 문학으로 주목받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다소 시대착오적이며 청산되어야 할 문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영현 소설에 대한 분석이 대개 초기 단편소설 몇 편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실 김영현 문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몹시 소략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단독 학위논문은 나온 적 없으며, 김영현의 문학 작품을 심층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 아래 표는 김영현 문학을 다룬 학술·학위논문과 해당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명석(1997), 「현대 기독교소설의 세 양상: 조성기, 이승우, 김영현의 경우」, 『문학과종교』, 2(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포도나무집 풍경」(1988),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94)
권세훈(1998), 「카프카 작품 『변신』의 한국적 수용 - 김영현의 『벌레』와 이윤택의 『사랑의 힘으로』」, 『카프카연구』, 6(1), 한국카프카학회.	「벌레」(1989)
유성호(2011),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 - 이승우와 김영현을 중심으로」, 『신학과사회』, 24(1),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94), 「내 마음의 서부」(1992), 「등꽃」(1993)
조운정(2015),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 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벌레」(1989),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1989)
배하은(2016),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포도나무집 풍경」(1988),

35) 김영현, 「〈인터뷰〉 리얼리즘 문학의 정통을 살려야 합니다 - 소설가 김영현, 그 이름이 갖는 묘한 울림」, 『말』, 2007.10, 145면.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학회.	「해남 가는 길」(1991)
송명희(2016), 「폭력과 아브제시옹 - 김영현과 오수연의 「벌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61, 한국비평문학학회.	「벌레」(1989)
손유경(2017),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질병과 섹슈얼리티」,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멀고 먼 해후」(1989) ³⁶⁾
이미영(2017), 「‘비전향장기수’ 서사와 ‘신념’의 네트워크」,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저 깊푸른 강」(1990), 「비둘기」(1992)
김명훈(2019), 「‘학살은 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사화하기: 1980년대 후반 소설의 정치적 무의식과 ‘거창사건」, 『동악어문학』, 79, 동악어문학회.	「불울음소리」(1987)
이소영(2020),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연구소.	「멀고 먼 해후」(1989), 「목격자」(1989), 「해남 가는 길」(1991)
김명훈(2021), 「광주, 그리고 우리에게 관하여: 1980년대 후반 김영현, 임철우, 최윤의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불울음소리」(1987)
배하은(2017),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멀고 먼 해후」(1989)
강소희(2018), 「1980년대 한국소설에 재현된 주체의 정치성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벌레」(1989), 「멀고 먼 해후」(1989)
이소영(2021),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 비행기」(1989), 「멀고 먼 해후」(1989), 「목격자」(1989), 「해남 가는 길」(1991), 「꽃다발을 든 남자」(1991) ³⁷⁾
이미영(2023),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벌레」(1989)

'비인간적인 것'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

〈표 1〉 김영현 관련 학술·학위논문 정리

그런데, 이처럼 김영현의 문학이 그 존재감 있는 등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스러져가고 만 것은 권성우가 “진보적인 지식인의 내면, 정확히는 실패한 운동권 지식인/작가의 내면”³⁸⁾의 차원에서 그의 문학을 주목한 순간에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보수 대연합에 의한 형식적 민주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90년대 초반에는 ‘실패한’ 운동권 지식인의 서사가 시의적절했겠지만, 이후 그러한 사건들이 더는 충격조차 가하지 못하고 당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서사는 ‘뻔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김영현을 ‘90년대 문학의 징후’를 잘 보여주는 작가의 자리에 위치시킨 것이 오히려 그의 문학을 고립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면, 우리는 그 전제, 즉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과연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이라는 서술만으로 김영현의 문학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을까? 만일 불충분하다면, 그러한 서술이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주체와 ‘내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와 같은 호명이 김영현의 문학을 청산의 대상으로 처분하는 데에 일조했음은 앞에서 짚어냈다. 다음으로 ‘내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영현의 문학을 읽어내는 틀로서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36) 이외에 「목격자」(1989), 「별」(1989),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1989), 「벌레」(1989)가 ‘변신’ 모티프의 맥락에서 언급되긴 하나,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지지는 않아 표에서는 제외했다. 김영현 소설의 ‘변신’ 모티프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글 234-235면 참조.

37) 이 중 일부 분석은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38) 배하은(2016), 앞의 글, 554면.

내면'이 아닌 새로운 해석틀을 마련할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1990년대는 흔히 내면성이 회복된 시대로 일컬어지곤 한다. 이때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면성이 90년대에 기원을 둔 개념이 아님을 암시한다. 기실 내면성은 주로 근대문학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야기되어왔다. 실례로 게오르그 루카치는 근대소설이란 “내면성이 갖는 고유한 가치가 감행하는 모험의 형식”이라고 서술한 바 있으며³⁹⁾, 가라타니 고진은 ‘풍경의 발견’과 ‘내면의 발견’을 근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짚어냈다.⁴⁰⁾ 이는 ‘내면성=근대성’의 구도를 따른다는 점에서 ‘자아’라는 현대적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 중 하나로 내면성을 제시한 찰스 테일러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테일러는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저작에서 플라톤에서 출발해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데카르트와 로크에 이르는 내면화의 장구한 흐름을 그려낸다. 이 흐름에는 두 개의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단계와 데카르트의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내면화의 흐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플라톤은 ‘내부/외부’의 이분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내세운 ‘신체/영혼’, ‘육체적인 것/비물질적인 것’, ‘가변적인 것/영원한 것’이라는 대당은 ‘내부/외부’의 틀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담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고차적인 상태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는 평정한 상태인바, 이는 불일치와 불연속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이성의 평정한 이해 속에서 최고에 이르려면 영혼은 반드시 하나”여

39)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07, 103면. 총체성이 갖춰져 있던 서사시적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채로운 모험들을 겪어다가면서도 그 모험을 이겨내리라는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험을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소설의 주인공들은 잃어버린 총체성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즉 “자신을 입증하는 가운데 자기 고유의 본질성을 찾기 위해” 모험을 찾아 나선다(같은 면).

40)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 b, 2010, 33면. 나아가 고진은 ‘내면의 발견’은 ‘풍경의 발견’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이는 “특정 종류의 장치(제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54면). 고진에게 있어 그 장치란 다른 아닌 언문일치다. 이때 언문일치는 단순히 말(言)을 글(文)에 일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文>의 창조”로서 “<재현>해야 할 것으로서의 <대상>을 발견하게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86면).

야 한다.⁴¹⁾ 그리고 이러한 통일은 ‘지고선’이라는 이데아에 우리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말하자면 ‘전체’가 ‘부분’을 감싸 안는 것과 같은 형태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 있어 지혜의 획득과 관련해 핵심적인 것은 “능력을 내면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전향의 문제”, 즉 “영혼이 무엇으로 향하는가”의 문제다.⁴²⁾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 부분 플라톤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정신/물질’, ‘영원한 것/일시적인 것’, ‘불변하는 것/변하는 것’과 같은 대당을 설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데아를 최종 지향점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상기한 여러 대당을 ‘내부/외부’의 측면에서 서술하는바, 플라톤과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에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 있다”⁴³⁾고 보고, 근본적 반성성을 강조한다. 이때 근본적 반성성이란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름 아닌 ‘나’에 의해 경험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되는 사물”이 아닌 “경험 주체로서의 자신”에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⁴⁴⁾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각함’과 ‘생각함’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이것이 그것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것, 공통되는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음”⁴⁵⁾을 깨닫는다. 그 ‘어떤 것’은 물론 우리 안의 하느님을 뜻한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내면은 “하느님과 조우하는 ‘공간’”⁴⁶⁾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데카르트에게 내면은 외부의 도덕적 원천들과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도덕적 원천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제 더 이상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데아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정신 안의) 생각들의 질서를 명증의 기준들에 따라 구축”함으로써 획득된다.⁴⁷⁾ 이러한 “실질로부터 절차로의 움직임, 발견되는 질서로부터 구

41)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하주영 옮김, 새물결, 2015, 247면.

42) 위의 책, 254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체/영혼’, ‘육체적인 것/비물질적인 것’, ‘가변적인 것/영원한 것’이라는 대당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인식과 욕망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면).

43) 위의 책, 265면.

44) 위의 책, 269면. 이처럼 ‘나’의 존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반성성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일인칭 관점을 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45) 위의 책, 275면.

46) 위의 책, 288면.

47) 위의 책, 317면.

축되는 질서로의 움직임”⁴⁸⁾은 자기충분적인 내면성에 기반을 둔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단계에서 우리는 내면에 더 깊이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자기충분성의 결여를 느끼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데카르트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⁴⁹⁾를 통해 자기충분적인 확실성을 형성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이성의 지배에 따를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체와 정념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대상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 같은 대상화는 “초연한 외적 관찰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기계적, 기능적으로 보게 됨”⁵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리 두기’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이러한 데카르트적 거리 두기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인물이다. 이제 거리 두기는 “주체 자신에 대해서도 행해지면서 더욱 멀리까지 진행된다.”⁵¹⁾ 데카르트가 신체적 감각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다면, 로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을 거리 두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인간을 천부적으로 진리로 향해 가는 존재라고 보는 모든 견해는 폐기된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시각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로크의 이론은 “독립과 자기책임이라는 이상”⁵²⁾을 생성하고 또 반영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거리 두기, 즉 반성적 태도로부터 비로소 ‘자아’라는 상이 탄생한다. 이후 “경제적·도덕적·성적 영역에서 근대적 생활 방식과 불가분한 모든 규율, 자기통제의 규율”⁵³⁾은 우리의 반성적 태도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내면화의 흐름은 내부와 외부의 연결이 점차 느슨해지는 것에 상응한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내부/외부’가 부분과 전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분리하였으며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외부(위)로 향해 가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데카르트에 이르면 내부는 그 자체로 완전해질뿐더러 외부는 철저한 대상으로만 남는

48) 위의 책, 319면.

49) 위의 책, 같은 면.

50) 위의 책, 298면.

51) 위의 책, 328면.

52) 위의 책, 339면.

53) 위의 책, 355면.

다. 로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부조차도 대상화한다. 이때 비로소 ‘자아’가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테일러는 “진정한 자아는 사물을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이 힘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쓴다.⁵⁴⁾

하지만 테일러는 로크의 ‘점적 자아’에 기반을 둔 원자론/도구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테일러에 따르면 원자론/도구론 관념은 단지 논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밀접하게 분업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원자론적 관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⁵⁵⁾ 더욱이 개인의 권리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의 위험과 파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권리의 상실을 낳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역설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지에서 테일러는 ‘사회성 테제’를 내세워 “권리들에 대한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동 순위에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인간의 정체성⁵⁷⁾을 구성하는 진정성의 이원적 지향에 대한 테일러의 정식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진정성의 윤리는 “내면에 대한 충실성이 자기 규정적 자유라는 이념으로 승화되면서 도덕철학적이고 정치철학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형상화된다”는 특성과 “역사적 지평에 대한 실천적 책임감과 부분/전체의 유기적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내포한다.⁵⁸⁾ 김홍중은 이를 더욱 정교화시켜 ‘마음의 레짐’⁵⁹⁾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김홍중에 따르면 ‘마음의 레짐’으로서의 진정성은 ①주체 ②주체에게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공적 지평

54) 위의 책, 348면. 테일러는 로크로부터 기원한 이 자아를 ‘점적 자아’라고 표현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는 자신에게 대상화와 재창조의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변화 대상인 모든 특수한 특징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위의 책, 347면).

55) 발터 레제-쉐퍼, 「찰스 테일러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비판」, 서연호 옮김, 『서울대학교 법학』, 46(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0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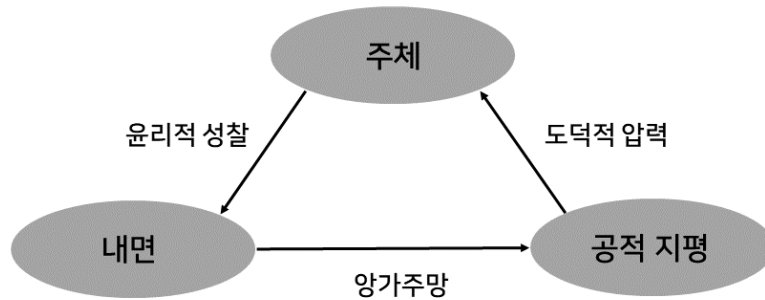
56) 위의 글, 같은 면.

57) 테일러는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분리 불가능한 두 차원이 서로 결합해 있다고 본다(찰스 테일러, 『세속화와 현대문명』, 김선옥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3, 475면).

58) 위의 책, 476면.

59) 이때 ‘마음’은 “인지, 도덕, 미학적 판단의 총체”를 포괄하며, ‘레짐’은 “집합심리가 개체들을 ‘통치’하고 ‘제어’하는 실질적 효과”와 그에 수반되는 특정 주체의 형성을 부각한다.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4면.)

③주체가 윤리적 성찰을 하는 공간인 내면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요소의 작동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마음의 레짐’의 작동 방식⁶⁰⁾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 진정성의 레짐은 주체의 윤리적 성찰에서 시작되어 주체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압력으로 끝나는 일종의 완결된 원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주체는 “윤리적 성찰과 도덕적 압력의 이중 동력에 의해, 성찰적인 동시에 참여적인 주체로서 형성된다”.⁶¹⁾ 그런데 이때 이 이중 동력은 각각 내부 또는 외부라는 서로 대립되는 방향을 지향하기에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바, 둘 중 어느 동력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냐에 따라 진정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김홍중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와의 관계에 기초한 참여적이고 공적인” 도덕적 진정성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기초한 내성적이고 사적인” 윤리적 진정성이 바로 그것이다.⁶²⁾ 이러한 세분화에 근거하여 김홍중은 80년대에는 도덕적 진정성이, 90년대에는 윤리적 진정성이 ‘규범적 우세종(normative dominant)’⁶³⁾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제출한다.

60) 위의 책, 31면.

61) 위의 책, 같은 면.

62) 위의 책, 36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홍중이 둘 사이의 완벽한 분할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류는 다만 진정성의 레짐이 지닌 내적 모순, 즉 “윤리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 사적 지평과 공적 지평, 내성(內省)과 참여”와 같은 상충하는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 집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같은 면).

63) 이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문화적 우세종(cultural dominant)’ 개념을 일부 변형한 것으로, “다양한 규범적 가능성들 중에서 특정 시대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고 있던 도덕·윤리

90년대 문학이 ‘내면성’으로 특징 지어졌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윤리적 진정성이 문화적으로 확충되어가는 공간이기도 했던⁶⁴⁾ 90년대 문학은 내면성의 회복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귀속된 개인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권위를 얻는(self-authorized) 개인”⁶⁵⁾을 그려내고자 했다. 이러한 개인은 “모든 위선과 형식적인 것과 허위”⁶⁶⁾를 배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주체인바, ‘내면성=문학적 진정성’이라는 등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축된다.⁶⁷⁾

그런데 테일러의 분석에서 ‘내부/외부’의 분할이 내면화의 고도화를 거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조차도 대상화하는 극단적인 거리 두기로 귀결됐듯이, 김홍중의 저술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따른다. 이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정성의 레짐이 마주한 위기, 즉 ‘도덕적 진정성[공적 지평]’과 ‘윤리적 진정성[내면]’의 분리 및 후자의 강화 현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생존주의’와 ‘스노비즘’을 향한 질주로 이어졌다는 진단에서 확인된다. 김홍중에 따르면 양자는 진정성의 레짐이 무너진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며 이 시대의 새로운 레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두 레짐 속에서 주체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절대적 지향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동물화되는 한편, “성찰성의 급격한 도구화, 탈내면화, 사회적 과시, 대중추수주의 등을 통해 타인들의 취향, 가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속물로 전락”하고 만다.⁶⁸⁾

또한, 이상의 흐름은 90년대 문학장에서 ‘내면성’이라는 용어가 쓰였던 맥락에서도 추출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1990년대의 벽두를 연 김영현 논쟁에서 내면성이란 권성우에 의해 ‘욕망’, ‘본능’, ‘개성’ 등과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명백히 ‘이념’, ‘정치’, ‘혁명’과 같은 대타항을 의식한 개념 설정으로, 공적 지평과 내면의 분리를 동반한다. 이후 신경숙, 윤대녕 등

의 체제”를 말한다(위의 책, 미주 7번).

64) 위의 책, 38면.

65) 황중연, 「내향적 인간의 진실」,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129면.

66) 서영채, 「왜 문학인가: 문학주의를 위한 변명」, 『문학동네』, 7(2), 2000.

67)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 2020, 257면.

68) 김홍중, 앞의 책, 42면.

의 작가들에 의해 내면에 대한 탐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수행되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개인”⁶⁹⁾의 자기 성찰과 자아 구축은 90년대 문학을 특징 짓는 핵심 모티브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⁷⁰⁾

그러나 진정성의 레짐이 ‘생존주의’와 ‘스노비즘’의 레짐으로 대체됨에 따라, 90년대 문학은 더 이상 80년대 문학과 그것을 추동했던 도덕적 진정성이 아니라 당대의 “상업주의적인 대중문화와 상품미학”⁷¹⁾에 맞서야만 했다. 서영채⁷²⁾와 신수정⁷³⁾의 작업은 문학의 영역에 그와 같은 자본주의 비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비평적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영채는 “90년대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저한 소극성과 수동성, 탈사회성, 그들이 뿜어내는 고립과 죽음의 이미지”야말로 “저 의기양양한 시장의 냉소주의와 이중성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자 대응”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⁷⁴⁾, 신수정은 90년대 문학은 지난 연대 문학의 “사회정치적 리비도를 내면화”한 것으로서 ‘비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내세워 “금기와 위반을 통해 문명과 제도의 폭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분석했다.⁷⁵⁾

하지만 이처럼 내면성의 문학에서 새로운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90년대의 내면성이란 기실 80년대의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의 탈출에서 발아한 것인바, 역설의 방식을 취해 이를 다시 공적 지평과 연결 짓고자 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

69) 황중연, 앞의 책, 133면.

70) (황중연) “내면성의 문학이 수반하는 특별한 모티브, 이를테면 개인의 자기 정의와 자기 창조의 모티브는 신경숙이나 윤대녕의 소설을 넘어서 90년대 문학 전체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지 않나 해요. 내가 누구인가는 나 자신이 정의하겠다는 의지, 권력이나 제도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 자유에 따라 나를 정의하고 표현하겠다는 의지는 신경숙, 윤대녕과 소설문법을 달리하는 작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지요.” (신수정, 이광호, 이성욱, 김미현, 황중연,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7(1), 2000)

71) 배하은(2016), 앞의 글, 549면.

72)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6(4), 1999.

73)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6(4), 1999.

74) 위의 글, 412면. 나아가 서영채는 신경숙과 윤대녕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작은 진정성의 영역을 향해 천착해들어가는 일이 더 절실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문학은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명제를 추출해낸다. 즉, “시장의 냉소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따옴표 속에 갇혀버린 ‘현실’로부터 더욱더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글, 426면, 강조는 인용자).

75) 위의 글, 484-485면. 이를 신수정은 ‘위반의 진정성’이라 일컫는다. (강조는 인용자)

지게 된다. 두 번째로, 2000년대의 ‘탈내면의 문학’⁷⁶⁾의 등장이 보여주다시피 시장경제하의 ‘생존주의’와 ‘스노비즘’의 레짐은 문학적 진정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문학은 그러한 레짐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도 “문학제도와 시장 속에 갇혀”⁷⁷⁾ 왜소해질 뿐이다.

더욱이 김홍중의 지적대로 오늘날은 진정성의 윤리가 더는 불가능한 시대라면,⁷⁸⁾ 문학을 진정성의 틀 안에서 읽고자 하는 것은 문학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 1990년대 초 진보적 지식인의 성찰적 내면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상찬받았던 김영현의 문학이 급격히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간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이 김영현의 소설에는 ‘내면성=진정성’을 초과하는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배하은은 김영현의 소설에서 내면은 “자기동일적인 주체 의식 내부로 한정되는 ‘공간’이 아닌 언제나 현실로 수렴되고 발산되는 열린 ‘서사’”⁷⁹⁾임을 주장했으며, 이소영은 김영현의 소설들에는 “진보적 지식인의 성찰적 내면을 특권화하면서 1990년대 문학이 간과해버린 것”⁸⁰⁾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두 논문은 김영현의 문학에 나타나는 내면을 진정성의 폐쇄적 구조에 가둬버리지 않고 그 자체로 읽고자 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고에 중요한 시사

76) 김영찬에 따르면 ‘탈내면의 문학’이란 2000년대의 ‘문학적 우세종’ 또는 ‘지배적 경향’으로서 “자신에게 지워진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바깥이 아닌 그 자신의 안에서 자율성과 더불어 유희하며 자율성을 내적으로 소진시키는 문학”을 말한다(김영찬, 「끝에서 바라본 한국근대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83면). 이는 성찰성의 도구화와 탈내면화를 특징으로 삼는 스노비즘과 맞닿는 측면이 있다.

77) 위의 글, 82면. 같은 맥락에서 김형중은 90년대 이후의 문학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창살 안에 갇힌, 그러나 갇혀서도 여전히 자본주의와는 상관없는 어떤 상태를 지시하고자 온갖 애를 다 쓰는 유토피아”에 비유한다(김형중, 『변장한 유토피아』,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6면).

78) 김홍중, 앞의 책, 45면.

79) 배하은(2016), 앞의 글, 573면.

80)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각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467면. 이소영에 따르면 이는 다름 아닌 ‘적대의 정동’으로, 김영현의 소설에는 “변혁에의 애착에 기인한 적대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포착되어 있다. 그러나 90년대 문학은 이러한 “정치적 정동을 배제/축소”시킴으로써 ‘탈이념의 시대’를 서둘러 맞이했고, ‘적대’라는 정동은 뒤로한 채 오직 ‘상처받은 애착’만을 내세워 진보적 지식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다(477-478면).

점을 던져준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김영현의 소설을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이라는 차원에서 읽어내는 기존의 독법에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마땅히 ‘누구’의 내면인지를 되묻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다. 1955년 경남 창녕에서 출생하여 1974년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작가는 1977년 11월 ‘시위 예비 음모 혐의’로 끌려가 1년 반 정도를 감옥에서 보냈다. 이후 1979년 5월 3일 미국 카터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가석방되었다. 하지만 그해 9월 강제징집⁸¹⁾ 당한 데 이어, 이듬해 5.17 쿠데타 및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대 내 불온 세력 형성 기도’라는 죄목으로 연대 보안대로 끌려갔다가 강릉 사안 보안대로 이송되어 보름 동안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⁸²⁾

이와 같은 그의 내력을 보건대, 김영현은 진보적 지식인이기 이전에, 혹은 진보적 지식인인 동시에 ‘고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이는 충분히 다루이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운동권으로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수사로서만 활용되어온 감이 있다. 이는 작가론의 차원에서도 미진한 점이거니와 그의 고문 경험을 일정 부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윤리적이기 못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결코 쉽게 망각되지 않을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고문 피해자의 내면’이라는 새로운 렌즈로써 김영현의 문학을 다시 읽어내고자 한다. 이때 다음의 글이 주목된다.

81)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병이 깊어 자리에 누워 계셨다. 머리를 뺨뺨민 아들의 손을 잡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그런 만남도 잠시였을 뿐, 나는 곧 박정희 정권의 야비하고 극악스런 보복의 하나였던 강제 징집 조치로 인해 다시 군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부산병무청으로 가서 책상을 뒤집어 엮으며 싸웠다. 그러나 병상에 계신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도망도 못 치고 있다가 기어코 몇 달 뒤인 늦가을, 마지막 코스모스가 햇살에 부서지는 날, 형사 한 명과 병무청 직원의 호위를 받으며 군대로 끌려갔다.” (김영현, 「나의 삶, 나의 아버지: 강제 징집당하던 그 날, 지팡이 짚고 배웅하던 마지막 모습」, 『신동아』, 2004.09.24., <https://shindonga.donga.com/Series/3/990610/13/103837/3>, 밑줄은 인용자.)

82) 해당 내용은 김영현, 「작가 연보」, 『포도나무집 풍경』, 북폴리오, 2003, 361-362면과 위의 글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A) 82년 군에서 제대하고 나오자 나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모두들 허덕이며 서로의 가슴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대거 진출한 80년대 집단의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곧 내가 깨달은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후배들은 웃으면서 바로 나 같은 경우가 재교육 대상자라는 것이었다. 낭만의 시대는 지나가고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가 열려가는 무렵이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오랜 격리 생활에서 익어온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해준 것은 행복하고 다행한 일이었다.⁸³⁾

(B) 나는 그 당시 약간의 정신장애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었는데, 그 고통은 내가 완전히 적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어 불쑥 체포당하여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둠 속에 갇힐 것만 같은 불안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다. 의식의 이러한 자기분열증은 운동성의 회복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 대한 애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⁸⁴⁾

김영현은 1990년 봄에 출간된 첫 단편집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의 후기에서 1982년 군 제대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며 위와 같이 쓴다. 그는 그 당시의 자신을 묘사하며 두 가지 형상을 제시하는데, ‘후배들을 뒤따라가기 위해 허덕이는 재교육 대상자’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전자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앞서서도 약속한 바이지만, 74학번인 김영현이 운동권 학생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시절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잇따른 감옥살이(1977~1978)와 강제징집에 의한 군 복무(1979~1982)는 그를 사회로부터 단절시켰다. 그로 인해 1980년대로의 진입을 제때에, 제대로 수행하지

83) 김영현(1990), 앞의 책, 299면. (강조는 인용자)

84) 김영현(1990), 앞의 책, 299-300면. (강조는 인용자)

못한 그에게 ‘70년대’와 ‘80년대’ 간의 낙차는 더없이 크게 다가왔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70년대’와 ‘80년대’는 (특히 김영현에게 있어) 어떤 지점에서 구분되는가? 김영현은 두 연대(年代)를 각각 “낭만의 시대”와 “과학의 시대”로 명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김종희, 우찬제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우리가 흔히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혁명적 낭만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한 희망을 견지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인간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지요. 기실 물인간적 상황 속에서는 과학조차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화라는 말을 많이 써 왔습니다. 인간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때로는 광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철저한 자기 소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 그런 상황 속에서 낭만주의가 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가진다면 혁명적 낭만주의라 부를 수 있겠지요.

그것이 일종의 역학관계가 형성되면서 파쇼와 반파쇼 진영의 싸움이 형성되고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그 변혁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80년대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부터를 과학시대라 부를 수 있겠지요.⁸⁵⁾

요약하건대, 1970년대 말 “과학조차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물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혁명적 낭만주의’를 앞세워 인간화를 꿈꾸던 김영현은 1980년대에 접어들자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그 변혁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변해야만 하는 자리에 놓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대거 진출한 80년대 집단”에게 있어 김영현은 세대론적으로는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선배’였으나 이론·이념적으로는 ‘재교육 대상자’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운동권 후배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비판되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고,

85) 김영현·김종희·우찬제, 「감금된 사회, 광기의 현실, 변혁적 작가」, 『문학정신』, 1990.9, 25-26면. (줄 바꿈과 강조는 인용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⁸⁶⁾ 1980년대에 김영현을 지배했던 ‘허덕임’의 정서는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김영현이 말하는 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기꺼움과 “동지들에 대한 애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 ‘다행’, ‘애정’이라는, 후배 세대와의 안정적인 합일을 암시하는 단어들은 미처 설명될 수 없는 남은 것들, 일종의 잔여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배하은이 지적하듯이 김영현의 소설 속 운동권 지식인·학생·노동자의 형상은 “1980년대 후반기 운동권과 진보적인 문학 진영을 지배했던 재현의 정치”로는 포섭되지 않는, “당대 비평이 요구했던 전형”과의 어떤 어긋남을 보여준다.⁸⁷⁾ 배하은은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김영현이 ‘끼인 세대’였다는 점을 든다. 김영현 자신도 “낭만주의의 마지막 세대이자 과학세대의 첫 세대”⁸⁸⁾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스스로를 “어중간한 세대”⁸⁹⁾라고 표현하는바, 이는 물론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영현 문학의 특수성 내지는 주변성을 담보하는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은 단연코 김영현이 자신의 지난 삶을 술회하는 글에서 ‘끼인 세대’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제시한 또 하나의 정체성, 즉 ‘고문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일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인용문 (B)로 돌아가 보면, 김영현은 약 4년 반 동안 이어진 감옥살이, 군 복무,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문 경험에 대해서는 “오랜 격리생활”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그러한 생활이 (특히 고문 경험) 남긴 후유증에 대해서는 ‘고통’, ‘정신장애’, ‘적에 의한 포위’, ‘고립’, ‘체포’,

86) 위의 글, 24면.

87)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19면.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며, 김영현의 소설이 어떤 면에서 재현의 정치를 초과하는가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과 함께 3.2절, 3.3절에서 후술할 것이다. 한편, ‘재현의 정치’란 ‘문학의 정치’와 일종의 대립쌍을 이루는 것으로, 전자가 ‘대표하다(stand for)’, ‘대변하다(speak for)’라는 함의를 지닌 ‘재현’ 개념과 결부된다면 후자는 문학적 재현, 즉 ‘재현전(re-presentation)’과 연관을 이룬다(같은 글, 214면 참조).

88) 김영현·김종희·우찬제, 앞의 글, 24면.

89) 김영현·김종희·우찬제, 앞의 글, 25면.

‘구타’, ‘고문’, ‘어둠’, ‘불안’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해 서술하고 있다. 김영현은 “의식의 이러한 자기분열증은 운동성의 회복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 대한 애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쓰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결코 그 ‘동지’들과 오롯한 합일을 이루지 못했거니와,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보건대 그러한 후유증이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영현은 역사의 상처를 자기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학보사 편집장을 하다 1977년 구속돼 1년 반 정도를 0.7평의 차가운 감옥에서 보냈고, 강제징집 당한 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느닷없이 끌려가 보름 남짓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아직도 박하사탕 같은 영화는 못 본다”고 할 정도로 고문의 상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다.⁹⁰⁾

그러므로 김영현에 의해 ‘의식의 자기분열증’이라 일컬어지는 고문 후유증이 “동지들에 대한 애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그의 서술은 동지들을 향한 확신보다도 극복에의 희구로 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의 인터뷰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김영현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문 피해자 인물들이 보여주듯이, 그러한 고통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장 아메리카 서술한바, “고문은 한 인간이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⁹¹⁾이며 “고문을 당했던 사람은 고문당한 대로 머무”르기 때문이다.⁹²⁾

고문이 유발하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 살피고자 할 때 일레인 스캐리의 저작 『고통받는 몸』은 좋은 참고서가 되어준다. 스캐리는 이 책에서 고문의 구조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스캐리에 따르면 고문은 ① 육체적 고통 가하기, ② 고통의 속성을 대상화하기, ③ 이 속성들을 정권의 기호로 번역하기라는 세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⁹³⁾ 그렇다면 각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

90) 김영현(2007.10), 앞의 글, 144-146면. (밑줄은 인용자)

91) 장 아메리카, 『죄와 속죄의 저편』, 안미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12, 61면.

92) 위의 책, 81면.

93) 일레인 스캐리, 『고통받는 몸』, 메이 옮김, 오월의봄, 2018, 32면.

어지는가?

먼저, 첫 번째 사건의 고통 가하기라는 육체적 행위는 심문이라는 언어적 행위와 함께 일어난다. 심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고문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행위를 완전히 왜곡하여, ‘질문’을 ‘동기’로, ‘대답’을 ‘배신’으로” 오해하게 만든다.⁹⁴⁾ 그러나 그와 같은 ‘배신’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은폐한다. 바로 죄수의 자백(혹은 ‘배신’) 이전에 고문자의 고통 가하기라는 육체적 행위가 먼저였다는 것. 육체적 고통 가하기가 유발하는 극심한 고통은 한 사람의 자아와 세계, 나아가 언어를 분쇄한다는 것.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고 투사하던 언어는 그 원천과 주어를 빼앗긴다”는 것.⁹⁵⁾ 요컨대, 고문자의 심문에 못 이겨 죄수가 하는 말들은 기실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⁹⁶⁾이며, 그렇기에 죄수의 (만들어진) ‘자백’은 ‘배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죄수의 “세계, 자아,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대상화하여, 이것들의 비가시적인 부재, 또는 ‘거의 부재’”를 가시화할 뿐이다.⁹⁷⁾ 이처럼 죄수가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아, 세계, 언어의 부재를 경험한다면, 고문자는 오직 “고통의 부재”만을 가진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죄수에게 부과되는 고통이 커질수록) 죄수의 세계는 작아지고, 고문자의 세계는 커진다.⁹⁸⁾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인 대상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러한 고통의 속성들⁹⁹⁾, 일레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의 와해’ 내지 ‘문명의 해체’는 고문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대상화되는가? 일레인에 따르면 죄수에게 일어나는 이 같은 현상은 고문자에 의해 세계의 “모든 것이 무기임”¹⁰⁰⁾이 표명됨으로써 극화된다. 즉, 고통은 “대상(object)을 탈-대상화하기(de-objectifying), 만들어진 것(the made)을 파괴하기(unmaking)”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대상

94) 위의 책, 55면.

95) 위의 책, 54면.

96) 위의 책, 55면.

97) 위의 책, 같은 면.

98) 위의 책, 57면.

99) 일레인은 고통의 속성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해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83-90면 참조.

100) 위의 책, 65면.

화된다는 것이다.¹⁰¹⁾ 그런데, 이렇게 대상화된 고통은 고문자에 의해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바로 이 부인이 세 번째 사건(고통의 속성들을 권력의 기호로 번역하기)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권력은 고통 자체를 부인하면서 고통의 속성들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다.¹⁰²⁾ 이러한 번역은 “권력과 고통 양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모든 사물의 무기화(化)로 인해 가능해진다.¹⁰³⁾ 무기는 위와 같은 고통의 속성들을 ‘고통받는 몸’으로부터 떼어내어 권력에 부착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통이 아니라) 정권이 “논박할 수 없는 실제”이자 “절대적인” 것이 되고, “세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닌 것이 된다.¹⁰⁴⁾ 이처럼 권력은 타인의 고통을 탈취하는 방식을 통해 허구적으로 형성된다.

이상으로 고문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고문의 구조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아울러 일레인의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를 ‘창조하기(making)’의 구조가 뒤집힌 것으로 읽어내는 장면이다. 일레인에 따르면 창조하기는 ‘지어내기(상상하기)’와 ‘실체화하기’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가 ‘허구의 대상을 만들기’라면, 두 번째 단계는 ‘허구인 대상을 (허구가 아닌) 사물로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고문은 이러한 창조하기의 과정을 뒤집는다. 창조하기가 앞의 두 단계를 거쳐 인공물을 만들어내 인간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과 달리, 고문은 인공물을 해체하여 고통을 생산하고(지어내기 단계에서의 해체), 고통의 실제성을 권력의 실제성으로 번역한다(실체화하기 단계에서의 해체).¹⁰⁶⁾

101) 위의 책, 같은 면.

102) 위의 책, 91면.

103) 위의 책, 같은 면.

104) 위의 책, 같은 면.

105) 위의 책, 462면.

106) 위의 책, 463면 각주. 이때 ‘해체’의 의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해체’라는 말은 자크 데리다식 해체론의 영향 아래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데리다와 달리 스캐리는 텍스트보다도 인간의 ‘몸’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하여 ‘해체’라는 단어의 쓰임 역시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데리다의 해체가 ‘의미가 구축된 지반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면, 스캐리의 해체는 ‘창조하기 내지는 창조된 것을 되돌리고 허무는 것’을 뜻한다. (메이, 「울긴이의 말」, 위의 책, 625-626면.)

이런 이유로 스캐리는 고문을 창조하기를 뒤집은 것으로서의 ‘파괴하기 (unmaking)’라고 일컫는다. 스캐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창조하기가 전도된 형태인) 파괴하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 그럼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들여다 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기의 너른 품으로 인도한다.¹⁰⁷⁾ 이처럼 인간의 창조 능력과 문명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아래 스캐리는 ‘몸’을 ‘무조건적이지 않은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제시한다.¹⁰⁸⁾ ‘고통받는 몸’에 대해 사유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는 몸들이 될 수 있도록”¹⁰⁹⁾, 그리하여 사랑과 연대의 안전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라는 스캐리의 상상력은 김영현 문학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김영현은 자신의 고문 경험과 그것이 남긴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소설에 녹여낸바, 이는 고문의 ‘파괴하기’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과정을 다시 뒤집음으로써 ‘창조하기’를 복원시키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의 파괴적 구조 속에서 남김없이 분쇄되었던 그의 세계와 자아, 그리고 언어는 ‘소설’이라는 형식 안에서 고문 후유증을 증언하는 텍스트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이처럼 자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마주하려는 김영현의 태도는 그의 문학에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체의 반성적 성찰에 기반한 진정성의 윤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이를 ‘취약성의 윤리’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때 ‘취약성’이란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에서 따온 것으로, “육체적인 요구조건 때문에 일단의 일차적 타인에게 내맡겨진 존재”¹¹⁰⁾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는 한 개체(아이)의 탄생이 타인(부모)의 육체에 근거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약성이란 “‘나’의 형성에 선행”¹¹¹⁾하는

107) 위의 책, 36면.

108) 김영옥은 이 지점에서 스캐리와 푸코를 연결 지으며, 스캐리의 작업은 ‘고통받는 몸’에서부터 출발해 “몸(의 제한과 ‘여기’라는 절대적 장소성, 고통과 통증)”을 벗어남으로써 “유토피아의 한 조각을 만들고, 다시 그 권위에 몸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몸들과 만나는 아름답고 의미로 충만한 순환”을 그려내고 있다고 분석한다(김영옥, 「〈발문〉 몸의 유토피아: 망상도 몽환도 도피도 아닌,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기」, 위의 책, 618면). 푸코가 「유토피아적인 몸」에서 제시한 바 있는 ‘무조건적이지 않은 유토피아’로서의 몸에 관해서는 같은 글, 618-621면 참조.

109) 위의 글, 621면.

110)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62면.

근원적인 상태이다. 즉,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취약성은 상호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은 어떤 주관적 상태로 간주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호의존적 삶의 속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회구조)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과의 관계 앞에 노출돼 있으니, 우리는 그냥 취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취약하다.”¹¹²⁾ 이러한 사유에 기대어 버틀러는 9.11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그와 같은 “취약성과 상실의 경험”¹¹³⁾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공통적 취약성을 자각하고,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비폭력적인 공동체를 상상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쓴다. “고통받는 것은 겸손과 취약함의 경험, 감수성과 의존성의 경험을 자아낼 수 있고, 이런 점을 우리가 너무 빨리 ‘해소’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산이 될 수 있다.”¹¹⁴⁾ 이는 김영현의 소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김영현에게 있어 수감과 고문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겸손과 취약함”, “감수성과 의존성”을 자아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즉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김영현 소설의 문학적 자산은 마련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 문학적 자산을 ‘취약성의 윤리’라는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작가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반영된 소설들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장 1절에서는 ‘감옥 안’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한 「벌레」를 중심으로 김영현의 소설 쓰기 작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파괴(당)하기’와 ‘창조하기’의 메커니즘을 살필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감옥 밖’으로 나온 뒤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그린 소설들을 특히 상실의 슬픔¹¹⁵⁾이라는 맥락에서 다룰 것이

111) 위의 책, 같은 면.

112)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65-66면.

113) 주디스 버틀러(2018), 앞의 책, 9면.

114) 주디스 버틀러(2018), 앞의 책, 213면.

115) 여기서 상실이란 프로이트적 의미의 상실임을 밝혀둔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20(개정판), 244면, 강조는 인용자) 본 논문의 2장 2절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상실, 즉 이상의 상실과 타인의 죽음에 대해 다룬다.

다. 이들 소설에는 ‘군사독재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이차대전 증후군’을 원형으로 삼는바, 해당 표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들의 저작을 경유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위와 같은 고통의 경험이 김영현의 소설에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 즉 버틀러적 의미에서의 ‘취약성’의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했음을 내보이고자 한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고통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소설들을 살필 것이다. 이는 ‘취약성의 윤리’의 일차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러한 조건 위에서 김영현의 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윤리적 가능성을 획득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3장 2절에서는 ‘노동자’라는 동일성에 기반을 둔 단일 주체의 탄생과 함께 배제되었던 존재들로부터 저항의 장면을 포착해낸 일군의 소설들을 다룰 것이다. 끝으로 3장 3절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지닌 김영현의 소설이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출발해 ‘애도의 정치’를 향해 차츰차츰 나아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영현 문학 연구의 빈약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고문 피해자의 복합적인 내면

2.1. 파피의 고통과 창조로의 전화

최재봉에 따르면 김영현이 소설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벌레」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¹¹⁶⁾ 그런 이유에선지 비교적 소략한 김영현 문학 연구에서 「벌레」는 유독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벌레」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해당 작품을 다른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권세훈(1998)은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카프카의 「변신」과의 비교를 통해 「벌레」를 검토한다. 「변신」의 그레고르가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 버렸음을 발견하게 된 것과 달리, 「벌레」의 주인공은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위엄마저 상실하는 순간에 자신을 벌레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¹⁷⁾ 이러한 그의 증상은 군부독재라는 억압적 시대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¹¹⁸⁾ 이는 카프카가 사회적 억압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대비된다.¹¹⁹⁾ 권세훈은 「벌레」의 주인공이 카프카의 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까닭을 여기에서 찾으며,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벌레」의 주인공은 그레고르와 달리 실제 벌레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조윤정(2015)은 1980년대 운동권의 감성 구조와 회고의 글쓰기를 연구한 글에서 「벌레」를 분석한 바 있다. 이때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이다. 조윤정은 주인공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란 다름 아닌 “타자가 보여주는 분노의 강렬함”에 있음을 짚어내는 한편, 벌레가 되어갈 때 주인공이 느끼는 위안감의 근원을 독방에 갇히기 전

116) 최재봉, 「지식인적 고뇌에서 민중적 건강성으로」, 『문학동네』, 2(2), 1995.

117) 권세훈, 「카프카 작품 『변신』의 한국적 수용 - 김영현의 『벌레』와 이운택의 『사랑의 힘으로』」, 『카프카연구』, 6(1), 한국카프카학회, 1998, 350면.

118) 위의 글, 352면.

119) 위의 글, 354면.

에 느꼈던 “비장한 분노와 해방감”에서 찾는다.¹²⁰⁾ 그런 의미에서 벌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는 “‘벌레되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에 대해 무감해지려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¹⁾

반면, 강소희(2018)는 그러한 위안감의 실체를 강요된 ‘노동자’의 형상에서 벗어난 자아가 느끼게 되는 자유로움으로 해석한다. 강소희에 따르면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벌레’ 모티프는 “‘노동자의 혁명’이라는 숭고한 이념에 의해 가려졌던 몸의 차원, 즉 80년대 정치적 주체들이 억눌렀던 본능과 욕망의 비루한 인간 형상에 대한 메타포”이다.¹²²⁾ 따라서 벌레로 변해가는 중에 주인공이 느끼는 위안감은 “이제는 ‘노동자’의 형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¹²³⁾

송명희(2016)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abjection)’ 개념을 끌어와 「벌레」를 읽어낸다. 아브젝시옹이란 “주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는 존재의 격렬한 반항”으로서, 흔히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 즉 오물, 쓰레기, 고름, 체액, 시신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¹²⁴⁾ 그런 의미에서 감옥 내에서 점차 점액질로 뒤덮여 벌레로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크리스테바가 문학을 “이질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것의 배설이자 정화”¹²⁵⁾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벌레」의 주인공은 글쓰기 과정에서 외상을 재경험하게 됨으로써 카타르시스가 아닌 고통을 느끼게 된다. 송명희에 따르면 이러한 결말은 군부독재가 주인공에게 남긴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편, 작품 발표 당시인 1989년에도 군부독재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20) 조운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 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286면.

121) 위의 글, 같은 면.

122) 강소희, 「1980년대 한국소설에 재현된 주체의 정치성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107면.

123) 위의 글, 109면.

124) 송명희, 「폭력과 아브젝시옹 - 김영현과 오수연의 「벌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61, 한국비평문학회, 2016, 85면.

125) 위의 글, 92면.

끝으로 이미영(2023)은 주인공의 벌레로의 변신을 19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의 결과로 환원시키는 대신 인간 존재의 인식론적·존재론적 전환의 차원에서 해석한다.¹²⁶⁾ 이미영에 따르면 주인공의 변신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적 위협 앞에서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탈(脫)인간화하는 역설적인 생존의 실천”¹²⁷⁾이며, 이는 주체 내부의 ‘비인간적인 것’의 과잉이라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비(非)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을 심문하고, 인간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한다”.¹²⁸⁾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김영현의 「벌레」를 분석할 때에 핵심이 되는 것은 ‘벌레-됨’과 그 순간 서술자가 느끼는 기이한 위안감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 또한 이 지점에 주목해 「벌레」를 읽고자 한다. 다만 그 목적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작가론의 차원에서 「벌레」라는 작품을 단순한 하나의 텍스트를 넘어 김영현의 문학 세계를 요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텍스트로 위치시키는 데에 있음을 밝혀둔다.

「벌레」는 서술자 ‘나’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자신이 감옥에서 벌레처럼 취급당했던 경험을 글로 써 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 육 개월가량의 독방 생활을 끝낸 ‘나’는 일심 재판에서 시위를 예비했다는 죄목으로 5년 구형에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치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날을 맞아 일제히 저항 구호를 외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전율”을 느낀 ‘나’는 같은 방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꾀꾀하게 그에 동참한다.¹²⁹⁾

‘나’는 거대한 해방감을 만끽하며 소리를 지르고 철문을 차댔지만, 이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방

126) 이미영,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적인 것’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49면. 벌레로 변한 인간(들)을 ‘폭압적 상황에 의해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개인’으로 한정 지을 경우, 그들에게는 오직 “기존의 우리가 지켜온 인간적인 삶으로의 복귀”(148면)라는 가능성만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이미영의 연구는 이 기존의 ‘인간다움’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목적으로 한다.

127) 위의 글, 161면.

128) 위의 글, 138면.

129) 김영현, 「벌레」,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41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나’를 끌고 간 탓이다. 그 과정에서 ‘나’의 육체는 무자비하게 훼손당한다. 교도관들은 ‘나’의 “명치께를 주먹으로 힘껏 질렀”고,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지는 ‘나’의 뒷덜미를 억센 손아귀로 낚아챘으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팔을 뒤로 꺾어 들어 올렸다.¹³⁰⁾ 그리고 얼굴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방성구(防聲具)를, 뒤로 꺾은 손에는 수정(手錠)을 채웠다. 장 아메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첫 번째 구타’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 구타는 수감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감방에서의 고문과 죽음을 이미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확실한 사실로 예상”하게끔 만든다.¹³¹⁾ 또한, 이는 상호 간의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계 침범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명문화된 혹은 명문화되지 않은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 즉 사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다.¹³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가 끌려간 곳은 소위 ‘떡방’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입은 막혀 있고 손은 묶인 채 홀로 그곳에 갇힌 ‘나’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배설욕에 시달린다. 하지만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인 ‘나’는 것처럼 지극히 단순한 욕구조차 쉽게 해소할 수 없다. “벽의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에 가려운 부위를 대고 소처럼” 비벼대 가려움을 물리치기도 잠시 “금방 또 다른 부위가 발작이나 일으킬 듯이 가려워”져 왔으며,¹³³⁾ ‘지도’¹³⁴⁾에게 온몸으로 오줌이 마렵다는 시늉을 해 보지만 그는 ‘나’의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뜰 뿐이었다. 결국 ‘나’는 수의를 입은 채로 오줌을 누기에 이른다.

나는 원래의 자리로 천천히 돌아와 처음의 자세대로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드디어 요도를 꼭 잡고 있는 의지력을 풀어버렸다. 고

130) 「벌레」, 42면.

131) 장 아메리, 앞의 책, 70면.

132) 장 아메리, 앞의 책, 71면.

133) 「벌레」, 45면.

134)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결수 중에서 차출된 죄수를 말한다. (「벌레」, 46면.)

무풍선을 팽팽하게 부풀어올리고 있던 물이 황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뜨뜻한 물기가 느껴졌다. 오즘은 곧 척척하게 푸른 수의의 바지를 적시고 사타구니를 타고 엉덩이끼로 하여 바닥으로 흘러갔다. 그런 상태로 한참 동안 오즘을 누었다.

오즘보가 비는 만큼 고통도 사라지고 일종의 쾌감이 부르르 떨리며 지나갔지만 대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기분이 되었다. (...) 나는 그 후에 어떤 곳에서 심문관의 지시에 따라 옷을 발가벗겨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분과 비슷하였으리라 기억된다.¹³⁵⁾

위 대목에서 나타나는 ‘나’의 형상은 조르조 아감벤이 제안한 ‘벌거벗은 생명’ 개념을 연상시킨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라는 저작에서 인간 존재를 ‘조에(zoe)’와 ‘비오스(bios)’의 두 가지 층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용례를 추적해보면 조에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서의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며, 비오스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뜻한다.¹³⁶⁾ 벌거벗은 생명은 바로 이 둘을 가르는 경계의 자리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벌거벗은 생명이란 “정치적 비오스도 자연적 조에도 아니며, 조에와 비오스가 서로를 포함하고 배제하면서 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비식별역이다”.¹³⁷⁾ 이는 ‘면책 살해의 가능성(살해될 수 있음)’과 ‘희생으로부터의 배제(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음)’라는 이중적 예외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치권력은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의 창출”¹³⁸⁾로부터 탄생한다. 이처럼 ‘생명’을 근원적인 요소로 삼는 형태의 정치권력을 아감벤은 ‘생명정치’라 일컫는다.¹³⁹⁾

135) 「별레」, 48면. (밑줄은 인용자) 밑줄 친 부분으로 보건대, ‘나’는 고문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3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33면.

137) 위의 책, 188면.

138) 위의 책, 177면. “주권의 영역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또 희생 제의를 성대히 치르지 않고도 살해가 가능한 영역이며, 신성한 생명 즉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이란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 포섭되어 있는 생명을 말한다.”(같은 책, 176-177면)

139) ‘생명정치’란 본래 미셸 푸코의 용어이다. 아감벤이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어떻게 전유했는지는 고지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인문과학』, 93, 2011, 227-230면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벌거벗은 생명의 배제라는 “예외상태가 지속성을 띠는 공간”이며¹⁴⁰⁾, ‘무젤만’¹⁴¹⁾은 벌거벗은 생명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인간성과 비인간성 사이의 극한의 문턱”¹⁴²⁾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감벤이 “인간과 비인간의 구별이 영원히 불가능해져버린 바로 그 지점”¹⁴³⁾에서 아우슈비츠의 윤리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 정상상태와 예외상태, 재현가능성과 재현불가능성의 이분법을 허물고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¹⁴⁴⁾ 그리고 이 윤리는 “불가능성을 무릅쓰고 무젤만을 증언하는 일”¹⁴⁵⁾을 통해 실천된다.

「벌레」의 ‘나’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증언하는 일 또한 무젤만의 자리에서, 혹은 ‘말할 수 없음’과 ‘말할 수 있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지대, 곧 벌거벗은 생명의 자리로 떠밀려진 ‘나’는 이후 어머니, 여동생, 애인 등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입에선 끊임없이 개처럼 질질 흘러대고 있는 침”과 “질퍽하게 오줌을 싸놓은 옷”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¹⁴⁶⁾ 이는 ‘나’를 끝없이 작아지고 싶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먼지와 같

140) 위의 글, 230면. “이러한 시각 속에서 아감벤은 아우슈비츠를 일회성에 머무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변형된 법률 구조의 패러다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정치의 급진적 변형에 조응하는 것이다.”(같은 글, 232면) 그 급진적 변형이란 벌거벗은 생명이 “시민들의 생물학적 생명 자체와 일치”하게 된 것을 뜻한다(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231면).

141) 수용소에서 쓰이던 은어로, ‘이슬람교도’라는 뜻이다. “이른바 ‘이슬람교도’는 수용소의 어법으로는 동료로 지버리고 자신도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수인을 가리켰는데, (...) 그는 걸어 다니는 시체이자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신체적 기능들의 묶음이었다. (...) 그들은 주위와의 모든 관계로부터 스스로 차단되었다. 아직 돌아다닐 힘이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작은 굼뻐고, 무릎을 굽히지도 못했다. 그들은 몸을 와들와들 떨곤 했는데, 이는 체온이 보통 37℃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고 있으면 꼭 아랍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미지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우슈비츠에서 사용된 말인 ‘이슬람교도’라는 용어의 발단이었다.”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61면, 64면에서 재인용, 밑줄은 인용자)

142) 위의 책, 71면.

143) 위의 책, 70면.

144) 한송희, 이하림, 「재현 불/가능성과 타자 윤리: 조르조 아감벤과 아즈마 히로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1), 2021, 19면.

145) 위의 글, 15면.

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싶”게 만든다.¹⁴⁷⁾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이 ‘벌레-됨’이 ‘나’에게 기묘한 해방감과 위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그때 나는 놀랍게도 내가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가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다. 손목을 죄는 수정의 고통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방성구도 이젠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

그것은 매우 비참하고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억지로 모가지를 비틀어 여기저기로 돌려보기도 하고 몸통을 움직여 보고자 노력도 했다. 둔하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내 몸은 내 의지력에 따라 움직여주었다. 단지 입에서 여전히 더러운 침 같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기분 나빴지만 벌레라면 흔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¹⁴⁸⁾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 벌레로 변해가는 것은 서술자에 의해 여러 차원에서 의미화된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비참하고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는 벌레로의 변신으로 인해 인간성이 박탈됨에 따라 모멸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이 벌레로 변했음을 자각하는 순간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를 일레인 스키테리가 말한 고통의 구조와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자아와 언어, 나아가 세계가 파괴된 ‘나’는 어느 순간 ‘벌레’라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나’라는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나’의 고통은 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의 입에서 더러운 침이 흘러내리는 일은 “벌레라면 흔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것이 파괴하기의 과정이라면,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한 편의 글로

146) 「벌레」, 49면.

147) 「벌레」, 같은 면.

148) 「벌레」, 같은 면.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써 내려가고 있는 ‘나’의 행위는 창조하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글을 쓰는 도중 “또다시 서서히 별레로 변해가는 자신”¹⁴⁹⁾을 느낀다는 점은 중요하다. 스캐리가 거듭 강조하듯 파괴하기가 창조하기의 과정이 뒤집힌 것이라면, 파괴하기의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역으로 창조하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별레-됨’과 ‘소설 쓰기’가 중첩되는 마지막 장면은 이를 잘 보여주며, 김영현 문학의 출발점이 고통의 경험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육체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공유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고통이란 “고작 몇 십 센티미터의 반경 안에서조차 한 사람이 느끼는 현실과 다른 이들의 현실 사이에 완전한 단절”을 일으키곤 한다.¹⁵⁰⁾ 따라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늘 고통의 표현 불가능성과 대결해야만 하며, 고통받는(받은) 사람은 고통에 대해 듣는 사람이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자신의 고통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표현할 것을 요청받는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재생하는 일은 실상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어떤 머뭇거림, 지연(遲延), 생략 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별레」의 서술자가 자신의 ‘별레-됨’의 경험을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술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기 전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산발적으로 늘어놓는다. 카프카의 「변신」의 줄거리를 요약하는가 하면, 별안간 자신은 ‘유물론자’임을 강조하고, 교도관과의 에피소드를 언급하고는 ‘부르주아적 감성의 반민중성’에 대해 경멸을 표하기도 한다. 이처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소설 초반부 곳곳에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¹⁵¹⁾,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¹⁵²⁾, “본 내용도 아닌 이야기가 쓸데없이 길어졌던 것 같다”¹⁵³⁾와 같은 구절들이 삽입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머뭇거림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

149) 「별레」, 51면.

150) 일레인 스캐리, 앞의 책, 7면.

151) 「별레」, 31면.

152) 「별레」, 32면.

153) 「별레」, 38면.

신의 이야기를 끝마친 ‘나’는 또 다른 괴로움을 토로한다.

‘말해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고 나에게 충고를 주었던 내 친구의 담당의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백 배나 천 배나 더 좋은 약이다’는 사실이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지금의 심정은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나는 모든 걸 차분히 그리고 세세하게 말해버리기로 작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별레가 되어버린 제2, 제3의 경험을 이야기하기에는 나나 독자 여러분이나 대단히 불유쾌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⁵⁴⁾

새삼스럽게 말하건대, 서술자 ‘나’의 내력은 김영현의 것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위 대목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린 김영현의 발화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별레」에서 서술자-김영현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말하지 않는 것이 백 배나 천 배나 더 좋은 약이다”라는 말과 함께 “별레가 되어버린 제2, 제3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그만두지만, 그는 이후의 소설들에서 자신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드러낸다. 그때마다 김영현은 번번이 다시금 ‘별레-됨’을 느끼며 괴로움과 불유쾌함을 느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김영현은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탈피하는 대신 그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쓴다’. 이는 ‘말할 수 없음’과 ‘말할 수 있음’ 사이의 자리에서 증언을 이어나가는 윤리적 실천이자, ‘파괴(당)하기’의 단계에서 출발해 그 과정을 뒤집음으로써 ‘창조하기’를 복원시키는 부단한 수행이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실천과 수행의 일환으로서 감옥 밖으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고문 피해자 인물들을 그린 김영현의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54) 「별레」 51면.

2.2. 감옥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그 실제

김영현의 소설에는 감옥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감옥과 고문이 남긴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어쩌면 감옥에 있었던 시절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회상을 하곤 한다. 「고통」(『현대문학』, 1998.1)은 이와 같은 고문 피해자의 복잡한 내면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고 무의미한 몇 개의 이야기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소설은 각기 분절되어 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¹⁵⁵⁾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는 ‘꽃의 이마, 혹은 그 방에 관한 추억’이라는 소제목 아래 ‘그’라는 인물이 ‘그 방’, 즉 감옥에 대해 떠올리는 내용이다. 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밤, ‘그’는 창문 너머의 빗줄기를 지켜보다가 “무슨 추억에 이끌리듯이, 혹은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낮익은 부름에 이끌리듯이” 어느 순간 그 방으로 건너간 자신을 발견한다.¹⁵⁶⁾ “기억이 매개하는 사건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래”하기 마련이기에,¹⁵⁷⁾ 그 방을 떠난 지 벌써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문득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 방에 대한 기억에 지배당하곤 한다. 이를 서술자는 ‘그’의 의식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¹⁵⁸⁾ 그럴 때마다 ‘그’는 이상한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이유로 그 방은 ‘그’에게 ‘이마 따스한 꽃’으로까지 의미화된다. 이는 어느 시인이 시집 끝에 썼다는 아래의 글을 읽고 ‘그’가 떠올린 것이다.

1980년 10월 27일, 백화산에는 첫눈이 내렸다. 채 양말을 신지 않아 발이 시리던 만덕사의 폭설. 해발 8백 미터의 이른 새벽 그와 함께 온 것은 법란(法難)이었다. 새벽 다섯 시, 법당 앞마당의 눈을 쓸

155) 본고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다. 나머지 에피소드는 각각 ‘아무도 없는 죽음’, ‘달과 바람’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다.

156) 김영현, 「고통」,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76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157) 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73면.

158) 「고통」, 77면.

고 돌아와 잠시 호롱불 앞에 조는 사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창호 지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다시 큰 산에 돌아왔을 때 정작 나를 반기는 것은 절도, 부처님도 아니었다. 법당 앞에 핀 국화꽃 한 송이였다. 그것도 하얀 눈 속에 얼굴을 내민 노란 국화꽃 한 송이, 그 꽃의 이마가 너무나 따스해 보였다. 환한 앞전구 같았다.¹⁵⁹⁾

이 글에서 ‘법란’은 ‘10.27 법난’을 가리킨다. 해당 사건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45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승려와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해 1,076명을 무차별 연행·고문한 사건이다. 이는 소위 ‘정화 조치’라는 명분 아래 불교계의 악습을 없애고 불교계를 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으나, 실상은 쿠데타 정권의 대규모 불교계 탄압이었다.¹⁶⁰⁾

한편, 법난을 겪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기는 것은 절도 부처님도 아니고 꽃이었으며, 바로 이 꽃이 ‘그’에 의해 ‘감옥’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해당 글에 대한 ‘그’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난 이후 “파벌 문중 싸움, 관제화된 불교, 권력에 아부하고 유착하는 어용 불교”¹⁶¹⁾와 같은 사태들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는 인물은 감옥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는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이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까닭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불교계의 부정적 상황이 ‘나’를 감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듯이, ‘그’가 놓여 있는 (아마도 부정적일) 상황이 ‘그’를 감옥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가 감옥으로 돌아갈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심지어 감옥이라는 공간을 ‘아늑한 집’ 혹은 ‘이마 따스한 꽃’과 같은 말로 일컫는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159) 「고통」, 79면.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160) “10.27 법난을 증언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2019.09.03.,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30>

161) “불교청론-10.27법난의 한”, 불교신문, 1996.01.29.,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2>

‘그’는 감옥에 대한 회상이 깊어감에 따라 강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추적거리는 가을비 소리는 어둠 속 소파 위에 누워 있는 그의 귀를 적시고 가슴을 적셨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을 소용돌이치며 흘러갔다. 그러나 그 불안은 그리 낯설지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 그 느낌이 자리잡고 있었던가. 언젠가 다시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그리하여 끝없는 질문에 시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어두운 공간에 혼자 갇힐지도 모른다는……162)

불안의 근원은 물론 감옥과 고문에 얽힌 트라우마에 있다. 추억에 젖어 감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회상하던 ‘그’는 이 익숙한 불안을 자각한 뒤 이제 불안 속에서 그 방에 대해 떠올리기 시작한다. 이때 별안간 어릴 적 ‘그’가 부모님 몰래 혼자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질 뻔한 경험이 삽입된다. ‘그’는 다행히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어머니는 죽고 없을뿐더러, 감옥에 있는 ‘그’에게 편지로 이별을 고한 그녀와는 다시 만날 수조차 없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세상의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¹⁶³⁾이라는 깨달음을 전해주었고, 시간에 대한 이러한 ‘수수께끼’에 몰두하던 ‘그’는 두 번째 봄이 지나갈 무렵부터 신경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환영들을 보게 된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신과 악마 같은 환영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환영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것을 노려보았다. (…) 어떤 것은 그를 두려움에 싸이게 했지만 어떤 것은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 연민을 불러일으켜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하게 하기도 했다. 빛과 그림자로 된 그 환영들은 시간의 이쪽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 같았다. 그를 구속하고 있던 단단한 콘크리트 벽도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순식간에 모래와 자갈, 시멘트, 물 등으로 분해되어버렸다. (…) 그는 드디어 자기로부터 분리된 자기를 보았

162) 「고통」, 83면.

163) 「고통」, 89면.

다. 그것은 간혀 있는 자기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또 하나의 자기였다. 해방된 그는 그녀를 향해 날아갔다. 수많은 문을 통과해 가다가 강을 보았고, 바다도 보았다. 그리고 자기를 고문하던 사내들의 모습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들처럼 둘러서서 물을 먹이고 전기 충격을 가했다. 끔찍한 장면이었다. 그녀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도 보였고, 핀란드 역에서 레닌이 연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향을 지르고 분노에 차서 입에 거품을 질질 흘리며 큰소리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¹⁶⁴⁾

비가 내리던 초여름 새벽, 결국 ‘그’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다.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의 회상은 여기서 갑작스럽게 마무리된다. 감옥에 대한 ‘그’의 회상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출발해 정신병원에서 끝난다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감옥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다음 대목은 그러한 양가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춥고 비좁고 더러운 그 방은 그에겐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별레의 집같이 아늑한’ 곳이었다. 말하자면 그곳은 그의 청춘의 꽃다발이자 모든 감정의 원천 같은 곳이었다. 나머지 생의 다른 모든 일이나 사건은 그것에 비하면 그저 시시하고 잡다한 파편 같은 것일 뿐이었다. 더구나 그는 아직도 이 세상에 언제든 그를 그곳에 다시 가두어놓을 수 있는 ‘어둠의 존재’, 이를테면 거미나 드라큘라나 비밀 경찰, 정보 기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¹⁶⁵⁾

‘그’는 감옥을 “청춘의 꽃다발”이자 “모든 감정의 원천”이라고 의미화하면서도 언제든 다시 자신을 그곳에 가둘 수 있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후자의 경우 고문과 정신이상으로 얼룩진 ‘그’의 감옥 시절을 보건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지만, 전자의 태도는 도

164) 「고통」, 92-93면.

165) 「고통」, 94면.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 다만 “나머지 생의 다른 모든 일이나 사건은 그것에 비하면 그저 시시하고 잡다한 파편 같은 것일 뿐”이라는 말을 통해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인데, 일단 ‘그’에게 있어 감옥 체험은 그 어떤 사건들과도 견주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경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그’의 양가적 태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초우와 함께」(『21세기 문학』, 1997)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우와 함께」는 ‘삼류’ 소설가인 이명학이 글을 쓸 만한 공간을 구하던 중 선배 작가의 소개로 정토사(淨土寺)라는 절에 가게 된 것으로 시작된다. 한참 동안 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간 그곳에는 초우(草愚) 스님이 있었다. 그는 선배가 언질을 준 대로 ‘성깔 고약한 중’이었다.¹⁶⁶⁾ 이명학은 자신을 반겨주는 커녕 투명스럽게 대하는 초우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만 절을 떠날지, 아니면 이왕 온 김에 좀 더 버텨볼지 갈등하던 이명학은 고민 끝에 보름간 절에 머물기로 한다. 이후 소설은 두 축에 기대어 전개된다. 이명학이 형과 형수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내려가면서 소설 쓰기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한편에 놓인다면, 다른 한편에는 그가 초우의 정체를 점차로 알아가는 내용이 놓여 있다. 초우는 일반적인 스님이라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윤회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명학이 있는 동안 염불을 하거나 공양을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는 “밥만 먹었다 하면 무얼 하는지 하루 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있”기만 한다.¹⁶⁷⁾ 이명학은 그런 그에게 왜 출가를 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시 던져 보지만, 초우는 아래처럼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만을 내놓을 뿐이다.

166) 이뿐만 아니라 선배는 초우의 내력 또한 대략적으로 전해준다. 선배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에 어떤 일로 꽤 오래 옥살이를 했다지. 자기 말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목숨은 건졌다는데 그건 알 수 없고…… 하여간 이름하고는 달리 성깔이 고약한 중이니까 굳이 권하고 싶지 않네만…… 정 갈 데가 없으면 내가 알아보지.” (김영현, 「초우와 함께」,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204면, 밑줄은 인용자)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167) 「초우와 함께」, 219면.

“호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요. 정말 오래간만이요. 지금은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

“반굴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소?”

(…)

“이무기란 놈이 포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 그걸 반굴이라 하지요.”

(…)

“그런데 이무기란 놈은 천둥 번개가 치지 않으면 별볼일이 없거든…… 평시에는 늪은 구렁이나 다름없어. 몸만 아프구.”¹⁶⁸⁾

이 알쏭달쏭한 ‘이무기’의 진의는 이후 초우와의 술자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다. 초우의 외사촌 누이가 먹을거리를 가지고 들렀다 간 날, 이명학은 초우의 제안으로 그와 함께 술잔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우로부터 출가를 결심하게 된 까닭을 듣게 된다. 초우에 따르면, 감옥에서 나오던 날 이 세상에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란 없음을 깨달은 그는 오직 증오와 환멸만을 품게 되었고, 한 이 년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출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초우는 ‘망명정부를 세운 것’이라 표현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나는 나를 잃어버렸소. 언제부턴가 나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소. 이것이 내가 이곳에 망명정부를 만든 이유라고. 이제 알겠소?”

초우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나 알고 보면 망명정부를 가진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지.”

그리고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학을 쏘아보며 말했다.

“알고 보면 이무기처럼 포아리를 틀고 도처에 망명정부를 차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엔 한둘이 아니라고.”¹⁶⁹⁾

168) 「초우와 함께」, 220-221면.

169) 「초우와 함께」 229-230면.

결국 ‘이무기’란 이 외판곳에 홀로 망명정부를 세운 스스로에 대한 은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사연을 전해주던 초우는 이만 방으로 돌아가려 다 말고 별안간 이명학을 노려보며 그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의 정체에 대해 “염탐꾼? 형사? 프락치? 안기부?”라고 묻는 초우의 눈은 이상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¹⁷⁰⁾ 그러다 갑자기 어떤 몸부림 같기도 용틀임 같기도 한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자리에 쓰러져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초우가 그러는 동안 이명학은 그를 말없이 지켜본다. 이명학이 보기에 그는 “감히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분노에 싸여 있는” 듯했다.¹⁷¹⁾ 이명학은 누워 있는 초우를 보며 포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이무기를 떠올린다. 그리고는 “절망인지 외로움인지 모를 깊은 구렁텅이로 자기까지 빠져드는 느낌”을 받는다.¹⁷²⁾ 방으로 돌아온 이명학은 그간 써 뒀던 원고를 모두 지워버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산하기로 마음먹는다.

감옥에서 나온 후 세상에 배신감을 느껴 자기만의 망명정부를 세웠다는 초우 스님의 이야기는 「고통」 속 ‘그’의 복잡다단한 심리를 해명해주는 면이 있다. ‘그’에게 있어 그 방은 “세상은 변한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에도 가슴이 뛰던 시절”을 표상하는 공간이다.¹⁷³⁾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방의 추억에 대해 흥미를 가지거나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¹⁷⁴⁾ 이 때문에 ‘그’는 그곳을 자신만의 비밀 공간으로 삼고 “남몰래 은밀히 설레는 가슴을 느끼며” 그 방을 찾아가고는 한다.¹⁷⁵⁾ 이로 보건대, 그 방은 ‘그’에게 있어 (초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만의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가 그 방에서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설명된다. 즉, ‘그’는 초우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온 후 세상에 실망을 느꼈고, 바로 이 감정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옥 공간을 다시 찾도록 만들었으며, 이 감옥 공간은 그에게

170) 「초우와 함께」, 231면.

171) 「초우와 함께」, 232면.

172) 「초우와 함께」, 233면.

173) 「고통」, 78면.

174) 「고통」, 94면.

175) 「고통」, 79면.

있어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일종의 도피처였던 것이다. 하지만 초우도 ‘그’도 그러한 자기만의 공간에서조차 완전한 안전함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들이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공간이란 실상 감금과 고문 위에 세워진 ‘감옥’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새겼고, 그들은 언제든 자신을 다시 감금과 고문의 공간에 처넣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 두려움은 피해망상의 형태로 발현되며, 초우의 사례는 그것이 극단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고문 피해자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김영현의 소설에서 거듭 언급되는 ‘군사독재 증후군’이라는 조어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 준다.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문예중앙』, 1989)에는 남영동에 끌려가 지독한 고문을 당하다 정신이상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인물인 인하가 등장한다. 김영현이 한 수필에서 직접 밝힌 바 있듯이 이 소설은 김영현의 대학 친구인 이을호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다.¹⁷⁶⁾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74학번 철학과 동기로서, 김영현이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이른바 ‘서울대 반정부 유인물 배포 미수 사건’) 체포됐을 당시 이을호 또한 주범 중 한 명으로 함께 구속당했다.¹⁷⁷⁾ 이후 이을호는 1983년 9월 30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의 출범에 앞장섰으며,¹⁷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던 중 1985년 5월 민청련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광주학살정권퇴진을 위한 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민청련을 향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¹⁷⁹⁾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을호는 같은 해 김근태와 함께 9월 2일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 치안본부 남영동 대

176) 김영현, 「개똥철학과 개똥 신학 - ‘부활’에 대한 단상」, 『나쓰메 소세키를 읽는 밤』, 작가, 2007, 211면.

177) 아울러 국문과 김사인과 미학과 김태경도 함께 체포되었는데, 김사인은 이후 시인으로 등단해 1989년 『노동해방문학』의 발행인을 맡았으며, 김태경은 1985년 도서출판 『이론과실천』을 설립해 인문-사회과학 서적 출판 붐을 이끈 인물로서 1990년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최초로 완역 출판한 바 있다. (신동호, 「[긴조 9호세대 비화](38)펜은 칼보다 강하다」, 『주간경향』, 2004.10.14., 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8264&dept=)

178) 김영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민주화운동청년연합, 그리고 김근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2016.01.2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41>

179)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893>

공분실로 불법 연행되었고, 23일간 지속된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10월 15일 응암동 서울시립병원으로 잠정 유치되었다.¹⁸⁰⁾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따라서 인하는 이을호를 모델로 하며, 소설 내에서 인하의 친구로 등장하는 ‘나’는 김영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나’를 초점 화자로 삼아, 어느 날 정체 모를 이들에게 잡혀간 인하의 행방을 그의 아내와 함께 추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파출소는 ‘나’의 납치 신고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할 뿐이었고, ‘나’는 인하가 “치본이나 안기부로 끌려”갔으리라고 추측은 하면서도 무턱대고 찾아갈 수는 없어 상심에 빠진다.¹⁸¹⁾ 그러던 중 ‘나’는 아내로부터 인하가 그 악명 높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대공수사단)에 있다는 것과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후 인하는 검찰에 송치되어 구치소로 옮겨졌지만, 발작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그런 인하를 면회하러 간 ‘나’는 의사로부터 인하의 증상이 꽤 심각하다는 진단을 듣고는 그렇다면 그를 석방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한다. 하지만 의사는 자신을 정치적인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며 그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로 일축한다. 그런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난 ‘나’는 흥분에 겨워하며 아래와 같이 아우슈비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에 약한 정신장애 현상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빅톨 프랭클이 쓴 책을 보았는데 저는 거기서 ‘2차대전 중후군’이라는 병명을 발견했지요. 선생님도 아시지요?”

(…)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도 수천 명의

180) 최정순, “이을호씨를 정신이상이 되게까지 한 현정권의 고문수사를 고발한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05295>

이후 이을호는 1986년 6월 구속집행 정치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증상의 재발을 반복하면서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22년 1월 26일 향년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경애, 「한평생 고문후유증 시달린 ‘민청련 이룬가’ 끝내 떠나다」, 『한겨레』, 2022.01.26. 등록, 2022.02.01. 수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1028943.html>)

181) 김영현,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271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포로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감옥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해방시켰는데도 그들 중 아무도 그곳을 쉽사리 나오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는 표정도 없었구요. 심지어 몇 사람은 대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슬금슬금 되돌아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¹⁸²⁾

위 대목에서 언급된 빅터 프랭클은 누이를 제외한 가족 모두를 강제 수용소에서 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자신의 수용소 체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의학자다.¹⁸³⁾ ‘나’가 이야기한 대로 프랭클은 해방의 날을 회고하면서 풀려난 사람들이 곧바로 자유를 만끽하거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음을 증언한 바 있다. 프랭클에 따르면 수용소와 같이 “극도의 심리적 압박하에” 있었던 인간들은 ‘해방’이라는 “돌연한 압박 해제”를 맞이하면 단지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도 “심리적인 위협”을 겪게 된다.¹⁸⁴⁾ 이러한 심리적인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불만’과 ‘실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피상적이고도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며(이는 ‘나는 무슨 까닭으로 그 모진 고생을 견디어 왔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후자의 경우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인간의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비롯된다.¹⁸⁵⁾

한편, ‘나’가 프랭클의 말을 전하면서 자신도 인하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신장애 현상을 앓은 적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 역시 고문 피해자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나’와 인하의 고문 경험을 아

182)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 282면.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183) ‘로고테라피(logotherapy)’란 ‘로고스(logos)’와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쾌락에의 의지’와 아들러의 심리학이 강조하는 ‘권력에의 의지’에 맞서 ‘의미에의 의지’를 내세운다. 그런 이유로 로고테라피를 ‘정신요법 제3학파’라고 일컫기도 한다.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태시 옮김, 제일출판사, 1969, 146-147면 참조.)

184) 위의 책, 139면.

185) 위의 책, 140-141면. 프랭클은 피상적이고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의 사례로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모르고 지냈군요”, “우리도 집에 남아 많은 고생을 했대요”와 같이 상투적인 인사치레만을 건네는 이들을 든다.

우슈비츠와 연결 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한¹⁸⁶⁾ 김근태의 1차 공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2월 19일 서울지방법원 재판정에서 9월 한 달여 간 자신이 당한 가혹 행위에 대해 증언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¹⁸⁷⁾

「새장 속의 새」(『문학동네』, 1995)라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연결성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대체로 선량하고, 대체로 답답한 영혼을 가진 어떤 사내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소설은 자전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으로, (아마도 작가 자신일) ‘그’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성격, 즉 낙천적이면서도 신경질적이고, 명랑하면서도 음습한 성격에 관해 ‘그’가 이 같은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게 된 까닭을 ‘그’의 지난 삶에서 추적하고 있다. 서술자는 ‘그’의 밝은 성격이 10남매로 이루어진 가족 안에서의 떠들썩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날카롭고 짜증스러우며 공격적이고, 다면적이며, 냉소적이기까지” 한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히며 그 요인 중 하나로 “우물거리듯이 그리고 조금은 망설이는 투로, 지난 시절 오랫동안 우리 모두를 지배해왔던 군사독재”를 든다.¹⁸⁸⁾

이러한 후유증은 군사 독재하에서 고통을 받은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수십 년 간 여차하면 계엄령, 저차하면 긴급조치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

이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인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

186) ‘나’는 인하의 아내로부터 유인물을 전달받는데, 그것은 “김근태씨 일차 공판 중에 나왔던 진술 내용을 누가 녹음기로 녹음을 해두었다가 풀어놓은 것”이었다. 뒤이어 유인물의 내용이 직접 인용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 273-275면.)

187) 김영현(2016), 앞의 글.

188) 김영현, 「새장 속의 새」,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16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한편, 서술자는 ‘그’의 음습한 성격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인으로 기구한 사연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예민한 심성과, 어린 시절 형성된 성(性)과 죽음에 대한 민감한 인식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졌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엄청난 경험을 했다. 특히 아우슈비츠는 그들 모두의 원죄로 각인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아우슈비츠 출신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이차 대전 후 겪은 유럽인의 정신적 외상을 가리켜 ‘이차 대전 증후군’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황폐함에다 ‘군사독재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지 모르겠다.¹⁸⁹⁾

서술자는 군사독재 치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정신적 외상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인들이 겪은 정신적 외상에 빗대어 ‘군사독재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사회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는 식의 서술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김영현이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무리하게 쓰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 실마리는 해당 책의 「작가의 말」에서 찾아진다. 이 글에서 김영현은 아래와 같이 쓴다.

이 시대를 특징짓는 단 하나의 단어를 들라면 그것은 ‘불안’일 것이다. 일차 대전 후 실존주의와 함께 지식인의 가슴속에 우울하게 자리잡았던 그 단어가 지금 우리들의 가슴 위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불안 속에는 아직 불온한 희망이 있었고, 어둠과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불안은 얼마나 차가운 불안인가.¹⁹⁰⁾

즉,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안 속에 “아직 불온한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러한 희망조차 사라지고 오직 불안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유가 「내 마음의 망명정부」(『실천문학』, 1997)에서도 확인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태영은 대학 선배 장학수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대전집’ 한 짝을 얼떨결에 구입하게 된다. 아내는 빠듯한

189) 「새장 속의 새」, 18면. (강조는 인용자)

190) 김영현, 「작가의 말」,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5면. (밑줄은 인용자)

살림에 72만 원어치의 월부채를 구매한 태영을 나무라고, 태영 역시 적잖이 부담되어 장학수를 찾아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장학수는 끝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태영과 장학수는 금전적인 문제로 얽힌 결끄러운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대학 시절에는 함께 살았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그 자취방에는 공단 지역의 노동자 상담실에서 일하던 배명식이라는 후배도 함께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온 장학수는 배명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집을 팔아 넘겼던 것이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 대전집’과 함께 태영에게 전해져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놀랍고 즐거운 상상력”의 소유자였던¹⁹¹⁾ 배명식의 죽음은 태영이 아래와 같은 사유를 하게 만든다.

이십세기의 앞부분은 그렇게 많은 혁명과 그렇게 많은 전쟁으로 보냈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모두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에는 도덕이 있다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희망에 차 있었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인간다운 사회 건설을 향해 전진하였다.

(…)

그러나 이십세기가 저무는 지금은 아무도 그런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¹⁹²⁾

‘역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식의 서술이 일견 익숙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단지 전망이 부재해진 상황 속에서 비애를 느끼는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태영을 이러한 사유로 이끈 직접적인 계기란 다름 아닌 고문 기억의 회귀였기 때문이다. 이 대목의 바로 앞부분은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영은 감기로 인한 고열 때문에 잠에서 깨 고통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알고 있는

191) 김영현, 「내 마음의 망명정부」,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72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192) 「내 마음의 망명정부」, 71면.

“고통을 건너가는 법”을 떠올린다.¹⁹³⁾을 그런데 그것은 과거 “고문을 당하는 동안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기에,¹⁹⁴⁾ 곧바로 고문의 기억이 그를 뒤덮는다.

온몸으로 날아드는 몽둥이질. 담요를 씌우고 차고 때리는 그 무서운 고통. 그리고 코와 입으로 쏟아붓는 물. 터져버릴 것만 같은 폐…… 그럴 때 깨달은 것이었다. 온몸의 힘을 뺀 것. 가능한 소리를 많이 지를 것. 고통에 온몸을 맡겨 버릴 것.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나 짐승 같은 시절이었던가. 그 짐승 같은 시절의 끝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그 짐승 같은 시절을 버텨왔는가.¹⁹⁵⁾

고문 기억으로부터 촉발된 ‘무엇을 위해 그 짐승 같은 시절을 버려 왔는가’라는 의문에 찬 물음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¹⁹⁶⁾ 그다음에 자리하는 것이 앞서 인용한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전망 부재의 감각은 실상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이 아닌 ‘고문 피해자’의 내면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김영현의 소설에서 군사독재 하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아우슈비츠는 일종의 느슨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군사독재 증후군’은 이차대전 증후군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이차대전 증후군에 전망 부재의 감각이 더해져 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로써 김영현 소설의 배면에 깔려 있는 그의 사유를 확인했으니, 이제 다시 프랭클의 논의로 돌아갈 차례다. 앞서 언급했듯, 프랭클은 해방된 수감자들의 심리 구조를 틀 짓는 두 가지 감정으로 ‘불만’과 ‘실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실망’의 감

193) 「내 마음의 망명정부」, 70면.

194)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같은 면.

195) 「내 마음의 망명정부」, 70-71면.

196) “그러자 제2차 세계대전 장면의 흑백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어느 낡은 극장에서 본 지겹도록 긴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면들이었다.” (「내 마음의 망명정부」, 71면.)

정을 다시 세분화해볼 수 있을 듯하다. 프랭클은 ‘실망’을 실존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¹⁹⁷⁾ 수용소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나온 후에도 실망과 고뇌가 계속된다는 것이 비단 ‘인간의 운명’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수용소 바깥의 현실이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혹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망’이란 ①인간 실존에서 비롯되는 실망과 ②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실망은 흔히 ‘불만’의 감정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이는 프랭클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불만이기도 하고, 나아가 세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김영현의 소설에는 이처럼 감옥에서 나온 후 세상을 향해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 당대의 국외 정세와 관련이 깊다. 「내 마음의 망명정부」의 태영이 그러했듯이 「새장 속의 새」의 ‘그’ 역시 이러한 전망 부재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그렇게 고문하지도 않”지만 ‘그’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당황하고, 자신이 없고, 분명하지가 않다”.¹⁹⁸⁾ 이는 현재의 ‘그’에겐 “생의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 그 같은 목표 상실의 원인은 물론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승리”에 있다.¹⁹⁹⁾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상실의 유형 중 ‘이상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고문 피해자의 심리 구조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라면, 다음의 대목은 또 하나의 축으로서 다른 유형의 상실을 제시한다. 서술자는 ‘그’가 어릴 적 최초로 목격한 죽음인 개의 죽음과 이후 ‘그’가 겪은 몇 번의 상실(아버지와 두 형,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뒤, 아래와 같이 쓴다.

팔십년대를 지나 구십년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슬한 죽음을 보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중에는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
는데, 어려운 시절 오랫동안 수배 생활을 하던 이범영 같은 이도 그

197) 이는 물론 프랭클이 실존주의적 관점을 채택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 아래 프랭클은 ‘불만’보다도 ‘실망’에 더 중점을 둔다. (빅터 프랭클, 앞의 책, 141면 참조.)

198) 「새장 속의 새」, 33면.

199) 「새장 속의 새」, 같은 면.

중의 하나이다. (...) 그리고 또 다른 죽음들이 있었다. 그런 슬한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느꼈다. 있음과 없음, 그리고 시간의 정체에 대한 의문에 빠졌다. 그는 무력해졌고, 그토록 발랄하던 농도 그만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쳐 있었다.²⁰⁰⁾

‘그’가 “슬한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또 한 명의 아우 슈비츠 생존자를 불러낼 필요가 있겠다. 프리모 레비는 프랭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해방의 순간은 기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⁰¹⁾ 그러나 그 원인으로 수감자가 수용소 바깥의 세상을 향해 느끼게 되는 ‘불만’과 ‘실망’에 주목한 프랭클과 달리, 레비는 수감자가 수용소 내부에서 죽어간 이들을 향해 느끼게 되는 감정에 주목한다. ‘수치심’ 또는 ‘죄책감’이 바로 그것이다. 레비에 따르면 해방의 순간, 즉 “다시 인간이 되었음을 느낀 순간” 수치심과 죄책감의 감정은 되살아난다.²⁰²⁾ 포로 생활 중에는 이미 “어떤 죄(진짜 죄든 추정적인 죄든 간에)로 인해 매일 고통당함으로써” 속죄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감정은 전면에 나설 일이 없었으나,²⁰³⁾ 해방을 맞이하자 새로운 속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짐 지우기에는 다소 부당해 보이기도 하는 이 감정에 대해 레비가 내리는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충분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다. 물론 적극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다 죽어간 이들의 존재는 생환자들이 “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너도 했어야 하는데”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²⁰⁴⁾ 다음으로 인간적 연대의 실패 경험에서 기인한 수치심도 있다. 수용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인간적 연대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²⁰⁵⁾ 끝으로 레비가 도달하는 지점은 “다른 사람 대신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끄러

200) 「새장 속의 새」, 27면. (강조는 인용자)

201)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돌베개, 2014, 81면.

202) 위의 책, 82면.

203) 위의 책, 89면.

204) 위의 책, 90면.

205) 위의 책, 92면.

운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물음이다.²⁰⁶⁾ 이는 “다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것일 수도,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과 연관된다.²⁰⁷⁾ 이 마지막의 죄책감을 일컬어 흔히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 한다. 「새장 속의 새」의 ‘그’가 “술한 죽음”들 앞에서 무력감과 우울을 느끼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죄책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또한 고문의 피해자인데도 “그 자신보다 더 심각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진상 규명과 치료를 당국에 강력히 요구”²⁰⁸⁾한다는 말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그’의 태도는 이를 입증한다.

김영현의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고문 피해자 유형의 인물들은 감옥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고문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감옥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식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김영현이 만들어낸 ‘군사독재 증후군’이라는 조어는 그와 같은 복잡한 내면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영현이 밝힌바 해당 단어의 착안점이 되어준 ‘이차대전 증후군’을 참조해보면, 수용소 또는 감옥에서 나온 이들은 두 가지 상실, 즉 이상의 상실과 타인의 죽음 때문에 중층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오롯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김영현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감옥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는 이와 같은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등장인물들이 감옥 공간을 그리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실 또 다른 고통의 표현일 따름이다. 이어서 3장 1절에서는 김영현의 소설 속 인물들이 이러한 고통, 즉 상실의 슬픔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06) 위의 책, 95면.

207) 위의 책, 97면.

208) 「새장 속의 새」, 18면.

3. ‘취약성’의 윤리적 가능성

3.1. 상실의 슬픔 안에 머물기

앞 절에서 살펴본 「새장 속의 새」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범영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대상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영현은 「이 공(公)이 남기고 간 한 켈레의 운동화」라는 수필에서 이범영과의 추억을 돌이키며 아래와 같이 적은 바 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군대로 끌려갔다가 뒤늦게 졸업을 하고 출판사에 다니고 있던 나는 넓은 의미에서는 운동권에 속하였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 활동으로나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의 중심 속에서 근근이 연명이나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이범영 - 인용자)는 달랐다. 그는 온몸으로, 온 열정으로 오로지 그 험악한 독재와 싸우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치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런 그에게 나는 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²⁰⁹⁾

서울대학교 법학과 73학번이었던 이범영은 1976년 12월 유신반대 시위주도로 구속되어(소위 ‘서울법대 삼총사 사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3년 민청련의 창립을 주도했고, 1984년 민청련 집행국장, 1988년 민청련 의장, 1990년 전국 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의장, 1992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에 매진하다 1994년 담도암으로 사망했다.²¹⁰⁾ 김영현은 위 수필에서 소설가가 된 후 적지 않은 소설을 썼음에도 “그 시절 이야기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 접어두고 있”음을 밝히며

209) 김영현, 「이 공(公)이 남기고 간 한 켈레의 운동화」, 『나쓰메 소세키를 읽는 밤』, 작가, 2007, 186면. (밑줄은 인용자) 이하 해당 글을 인용할 때에는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10) “이범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patriot/name/%E3%85%87/page/7/post/275>

언젠가 이범영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다.²¹¹⁾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쓴다.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바탕 통곡을 하는 일이다. 그가 죽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 한번도 울지 않았던 것이다. (….) 왜 그런지 아직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울음은 언제나 가슴에 떠돌다가 목울대를 간질대다 사라진다. 아직도 내 가슴에 분노가 남아 있기 때문일까. 가슴속에 떠도는 이 통곡을 언젠가 한번 토해보거나 할 것인지.²¹²⁾

이는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애도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란 대상에 부과되었던 리비도를 점차 철회해 나감으로써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이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슬픔의 작용은 현실성 검사에 따라 언젠가 완결되기 마련이다.²¹³⁾ 반면, 위 인용문은 가슴 속의 응어리를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영현의 소설에는 이처럼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상을 그리워하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그리움은 결코 쉽게 해소될 수 없다.

「마른 수수깡의 연가」(『동서문학』, 1994)의 주인공 덕수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많은 이들이 떠나간 고향은 그에게 있어 편안함은커녕 어색함만을 선사할 따름이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전화라도 넣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지만, 그 예겐 그럴 만한 사람조차 없다.²¹⁴⁾ 그러던 중 덕수는 자신에게 “달콤하면서도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는 미경을 떠올린다.²¹⁵⁾ 어린 시절 미경을 내심 좋아했었던 덕수는 대학생이 된 후 문득 그녀를 떠올리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소개한 뒤, 오늘 저녁 창계다리 옆에 좀 나와줄 수 있겠냐는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코

211) 「이 공(公)이 남기고 간 한 켄레의 운동화」, 188면.

212) 「이 공(公)이 남기고 간 한 켄레의 운동화」, 189면. (밑줄은 인용자)

2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4-246면 참조.

214) 김영현, 「마른 수수깡의 연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작과비평사, 1995, 67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15) 「마른 수수깡의 연가」, 68면.

트 차림의 단발머리 그림자 하나가 멀리서 잠시 서성이다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덕수는 친구 박종구의 시화전에 갔다가 그의 아내로 있는 미경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구는 일 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고, 덕수의 아내도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덕수가 고향을 찾은 것도 실상 아내의 사망신고에 필요한 호적 초본을 떼기 위해서였다.

읍사무소에서 볼일을 끝낸 덕수는 조심스레 미경에게 전화를 걸고, 두 사람은 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한다. 덕수는 1년 만에 그녀와 재회한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가볍게 설레는 것”을 느낀다.²¹⁶⁾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그 감정을 감추고는 태연함을 꾸며낸다. 그리고는 종구의 얼굴과 그의 시화 <마른 수수깡의 연가>를 떠올린다. 이는 덕수가 종구의 시화전에서 구매한 것으로, 덕수는 ‘나는 철자법이 틀린 그의 편지를 받는다 / 뜰에는 난초가 피어 있고 / 마른 수수깡 안으로 바람이 불어간다……’로 시작되는 시에서 미경의 모습을 보며 그리움이 “가슴 밑바닥으로 잔잔한 파문처럼 전해져”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²¹⁷⁾

두 사람은 찻집을 떠나 인근 저수지로 이동하고, 그러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둘이 나누는 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물론 죽은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구가 자신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와중에 그 시절에 용기를 내지 못해 놓쳐버린 미경 또한 그리워한다는 점이다.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며 아내의 죽음 이후 느꼈던 슬픔을 토로하던 덕수는 눈가가 젖어있는 미경을 보곤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는다.²¹⁸⁾ 미경은 잠시 움찔하다 가만히 안겨 있긴 했지만, 그 짧은 포옹은 미경이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어”냄으로써 끝나고 만다.²¹⁹⁾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덕수는 다음과 같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다.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216) 「마른 수수깡의 연가」, 76면.

217) 「마른 수수깡의 연가」, 71면.

218) 「마른 수수깡의 연가」, 90면.

219) 「마른 수수깡의 연가」, 같은 면.

그는 생각난 듯이 입을 뗐다.

“그 옛날 언젠가 눈 내리던 날, 청계다리 근처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한 거 기억하세요?”

“예.”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다리 저쪽에서 서성거리던 그림자가…… 미경씨였죠?”

“……”

미경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난 그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운동화가 눈에 파묻혀 버릴 정도였으니까요.”²²⁰⁾

그리고는 다시금 <마른 수수깡의 연가>를 떠올리며 어떤 그리움에 휩싸인다. 덕수는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손을 꺼내어 미경의 손을 잡아본다. 하지만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내의 모습은 미경과의 성공적인 결합을 가로막는다.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 덕수는 죽은 아내와 미경을 그리워하고 있는 셈인데,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그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소될 수 없다면 미경을 향한 그리움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해소될 수 없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실의 극복은 다만 “이제 죽음의 텃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문장으로,²²¹⁾ 미약한 추측의 형태로만 회구될 뿐이다.

한편, 이외에도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 또한 덕수에게 상실감을 유발한다는 점을 재차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는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낀다.²²²⁾ 더욱이 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서 느낀바,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세상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변해버린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²²³⁾ 이는 소설 내에서 죽은 아내와 미경을 향한 그리움으로 형상화되어있는 감정의 실체를 암시한다. 즉,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움의 정서란 실상 변해버

220) 「마른 수수깡의 연가」, 90면.

221) 「마른 수수깡의 연가」, 91면.

222) 「마른 수수깡의 연가」, 67면.

223) 「마른 수수깡의 연가」, 89면.

린 세상이 유발한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대목이 주목된다. 덕수가 찻집에서 미경을 기다리는 동안의 장면이다.

그는 다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신문을 가져와서 읽었다. 신문에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기사가 커다랗게 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르비아인의 보스니아인에 대한 대학살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품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초등학교 사학년 땀가 육이오날, 단체로 군청에서 열렸던 전쟁유품 전시회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복도 옆 탁자를 따라 흰 종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각종 폭탄, 포탄, 수류탄, 총, 단검, 총알, 지뢰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덕수는 그때 그 그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신문을 보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창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도, 유럽의 어느 찻집에 앉아 있던 사람은 한가하게 신문을 보면서 하품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갑자기 세상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²²⁴⁾

작품 전반의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그 돌출성으로 인해 오히려 주목을 요한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어린 시절 6·25 전쟁 전시회에 갔다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던 덕수는 이제 보스니아 내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하품이나 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게다가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쯤으로 여기며 세상을 거침없이 조소한다. 이와 같은 공감의 부재와 염세주의적 인식이야말로 이 작품이 겨냥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덕수는 그 자신이 소설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표상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내 그리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등꽃」(『창작과비평』, 1993)에서는 ‘그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움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소설은 진태와 유선의 이혼 소식을 접한 ‘나’가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1980년 봄, “광주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 무렵”²²⁵⁾에 치러진 둘의 결혼식은 “우리들의 첫 결혼식”²²⁶⁾으로서 많은 선

224) 「마른 수수깡의 연가」, 75면. (밑줄은 인용자)

225) 김영현, 「등꽃」,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작과비평사, 1995, 92면. 이하

후배와 동료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둘의 결혼을 “단순한 남과 여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들의 만남이었고, 우리들 사랑의 승리”였다고 회상한다.²²⁷⁾

‘나’와 같은 대학 씨클이었던 두 사람은 “개인적인 연애를 철저히 배격했던 우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었던 사이”였다.²²⁸⁾ 하지만 4학년이 되던 해 진태는 결의 끝에 학내 시위에 가담했고, 곧바로 끌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계가족이 아닌 유선에게 편지와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특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만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친구들 사이에선 여기에 갇혀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파와 반성문은 항복 선언과 다름없다는 파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진태만은 반성문을 쓰고 나가야 한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래와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이번에 나가지 못하면 정말이지 그들의 사랑이 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치된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폭풍우 같은 독재의 암흑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 하나를 이루어 낸다는 것, 또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모든 진실된 힘과 마음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독재권력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²²⁹⁾

진태는 처음엔 반성문을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모두가 그를 열심히 설득한 끝에 반성문을 쓰고 감옥을 나갔다. 그는 1년 8개월 만에 유선과 재회했고, 둘의 사랑은 마침내 성공했다. 그러나 둘이 결혼식을 올린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5·17 쿠데타가 일어났다. 진태는 ‘복학생대책위원회’의 간부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26) 「등꽃」, 95면.

227) 「등꽃」, 95면.

228) 「등꽃」, 95면.

229) 「등꽃」 98면. (밑줄은 인용자)

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로 끌려가서 다섯 달 만에 풀려났다. 그렇게 시작된 80년대에 친구들은 점차 제각기 “현장으로, 혹은 직업전선으로 떠나가거나, 혹은 실업자로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²³⁰⁾

그로부터 십수 년이 흐른 지금, 다들 어느덧 중산층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진태의 이혼 소식을 접하게 된 친구들은 “우리 모두에게 신화처럼 아름다웠던 추억을 남겨주었던 그들의 결혼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데에 의기투합하여 진태를 불러내 일종의 ‘청문회’를 열기로 한다.²³¹⁾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이혼 사유를 묻는 것에 진태는 대뜸 ‘그리움’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귀중한 이야기처럼”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²³²⁾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문득 깨달았지. 내 가슴속에,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어느샌가 그리움이란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그리워해야 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아야.”

(…)

“나는 알았지. 그리움이 없다는 말은 곧,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일상의 쾌락과 안락함이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스물아홉평 아파트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저 편안함과, 국외자가 되기 싫은 안전장치의 한 부분일 뿐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모두 그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²³³⁾

진태에게 있어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그리움조차 불가능한 시대이다. 그리워할

230) 「등꽃」, 102면.

231) 「등꽃」, 105면.

232) 「등꽃」, 109면.

233) 「등꽃」, 109-110면.

대상도 없을뿐더러, 이제는 한때 그리움이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²³⁴⁾ 앞서 살펴본 「마른 수수깡의 연가」와 비교했을 때, 이는 상황의 악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마른 수수깡의 연가」에서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나마 남아 있던 그리움은 「등꽃」에서 아예 폐제된 것으로 등장한다. 그랬기 때문에 진태는 더 이상 그리움이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간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그리움의 원형처럼 여겨지던 두 사람의 사랑을 이혼이라는 형식으로 실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그리움의 부재’라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은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고, 친구들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신 끝에 ‘나’는 결국 심한 구역질을 하기에 이른다.²³⁵⁾ 그때 ‘나’는 “가슴속에 문득, 눈물이 아롱진 시야 가득히, 보랏빛 환한 등꽃”을 떠올린다.²³⁶⁾ 여기서 ‘보랏빛 등꽃’은 진태와 유선의 결혼식이 열리던 봄날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꽃으로서 한편으론 그리움의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어디까지나 환영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것의 회복 불가능성을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등꽃」은 이제 사라져버린 그리움을 그리워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살펴본 두 편의 소설이 그리움을 해소하는 일의 어려움 내지는 불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어서 살펴볼 김영현의 소설들은 이 해소될 수 없는 그리움으로부터 비롯된 이상향을 향한 힘들고도 끝나지 않는 추구를 담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문학사상』, 1991)는 은기를 초점 화자로 삼아 그가 간염 증세 때문에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입원 첫날 은기는 마창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마 병장’이라 소개한 그는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 계엄령 때 이곳에 끌려왔으나 병역 카드가 사라져 지금껏 제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은기는 그를 동정하며 자기라도 나갈 때 알아보겠다는 말을 전하지만 마창수는 우스꽝스러운 미소를 지을 따름이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얼마 뒤 특별회진 때 밝혀진다. 특별회진이란 한 달에 한 번 원장과 부원장이 순찰

234) 「등꽃」, 112면.

235) 「등꽃」, 113면.

236) 「등꽃」, 113-114면.

차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날만은 병실에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곤 했다. 마 병장의 침상에 이른 부원장은 뜻밖에도 그를 ‘마창수 일병’이라 부르며 원대복귀를 준비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마 병장은 제대가 가까워진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그들이 떠나자마자 욕설을 내뱉는다. 원대복귀하라는 말은 이미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으며, 그건 단지 책임을 면하려는 수작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마 병장은 자신에게 처방되는 한 움큼의 알약 또한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약’일 거라고 주장한다. 은기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를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비에 같은 게 가슴속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²³⁷⁾을 느낀다.

이후 지루하게 이어지는 병원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통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도 아닌 이상한 대기 상태의 연속”²³⁸⁾이었다. 중환자를 제외한 환자 대부분이 생애 가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말이 가까워지자 병원에 크리스마스 위문 공연단이 왔다. 그들은 사무엘 바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각색한 연극을 선보인다. 해당 연극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고도’, 즉 구세주란 다른 아닌 세탁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 등장한다. 연극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사내 2’는 그를 “자본주의에서 온 우리들의 구세주”²³⁹⁾라 일컫는다. 그러나 연극은 마 병장의 무대 난입으로 인해 중단되고 만다. 환자용 가운을 걸치고서 엄숙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선 마 병장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전한다.

“정말, 구역질나는 수상한 연극이야. 우리들 가슴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는, 그레 불씨처럼 남아 있는 희망을 깡그리 부셔버리자는 그런 습한 음모의 냄새가 나는 연극이라구.”

(…)

“여러분, 고도는 옵니다. 백마를 탄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 형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237) 김영현, 「고도를 기다리며」, 『해남 가는 길』, 솔, 1992, 42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38) 「고도를 기다리며」, 45면.

239) 「고도를 기다리며」, 55면.

(…)

“백마를 탄 왕자가 오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고통이 달라진 게 뭐가 있던 말입니까?”²⁴⁰⁾

이윽고 무대는 마 병장을 끌고 가려는 기간병들과 그런 기간병들을 막으려는 환자들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적으로 유리한 환자들은 머지않아 기간병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마른 쉼에 불이 영긴 것처럼” 흥분한 환자들은 “그동안 가슴 밑뿌리에서 근질거리던 설명할 수 없는 욕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²⁴¹⁾ 그들은 마 병장의 지도하에 문밖으로 나서며 일제히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행진은 헌병대에 의해 금세 중단된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출동한 헌병대는 한 줌의 자비도 없이 환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한다. 진압봉에 얻어맞아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고꾸라진 은기는 차츰 의식을 잃어가며 ‘우리들의 고도는 무엇이지?’라는, 수수께끼와 같은 물음을 떠올린다. 소설은 그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깊은 아픔”²⁴²⁾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암시하듯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란 이름의 유토피아란 결코 쉽게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은 “이 시대에 절멸되어버린 ‘고도(유토피아)’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환기”해주는 작품인 것이다.²⁴³⁾

그러나 김영현의 소설은 단순히 이러한 고통을 환기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내 마음의 서부」(『문예중앙』, 1992)라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술자 ‘나’에게 있어 ‘서부’는 말하자면 ‘고도’와 같은 것이다. 어린 시절 본 서부영화는 ‘나’에게 서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차츰 자라면서 ‘나’는 “영화 속 현실과 진짜 현실의 거리”²⁴⁴⁾를 깨달

240) 「고도를 기다리며」, 55-56면.

241) 「고도를 기다리며」, 57면.

242) 「고도를 기다리며」, 63면.

243) 유성호,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 -이승우와 김영현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24(1),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1, 126면.

244) 김영현, 「내 마음의 서부」, 『해남 가는 길』, 숲, 1992, 66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있고, 마음속에서 서부를 지워갔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나’는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²⁴⁵⁾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듣게 된 서부영화 주제는 ‘나’로 하여금 아주 오래간만에 서부를 떠올리게 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언젠가는 “사랑과 정의가 살아 있는 곳”²⁴⁶⁾인 서부에 꼭 한 번 가보고야 말리라는 다짐을 다시금 품게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정민과 달리 박 목사 식의 공동체 운동에 공감한다. ‘나’의 대학 후배인 정민은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이고 혁명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박 목사가 대관령에다 이상적인 소규모 공동체를 꾸리려는 것을 “낭만주의적 공상”이라 비판한다.²⁴⁷⁾ 반면 ‘나’는 박 목사의 대관령으로부터 자신의 서부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박 목사님의 대관령이란 것도 어쩌면 나의 서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역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종종 아련한 향수처럼 서부의 그 낯선 세계를 떠올리듯이 혼자 대관령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²⁴⁸⁾

박 목사의 대관령은 ‘나’의 서부가 그렇듯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찾아 떠나는 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실체 없는 이상향을 향한 향수는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채 어떤 ‘꿈’으로 남는다. 하지만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런 꿈이라도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²⁴⁹⁾을 도리어 부러워한다. 소설은 박 목사와 ‘나’가 끝내 정민을 면회하지 못한 채 교도소를 나서며 ‘대관령’을 향해 가는 것으로 끝난다. 물론 이때의 대관령이란 강원도에 위치한 실제 대관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박 목사는 “대관령이 어디 강

245) 「내 마음의 서부」, 68면.

246) 「내 마음의 서부」, 69면.

247) 「내 마음의 서부」, 79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박 목사는 박홍규 목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1979년 9월 강제 징집된 김영현은 강원도 간성의 포병대대에 배속된 후 그곳의 민간인 교회(‘간성교회’)에서 박홍규 목사를 처음 만났다. 김영현과 박홍규 목사와의 인연은 김영현, 「그해 겨울의 톱밥 난로」, 『나쓰메 소세키를 읽는 밤』, 작가, 2007, 190-197면 참조.

248) 「내 마음의 서부」, 82면.

249) 「내 마음의 서부」, 78면.

원도뿐인감”²⁵⁰⁾이라는 말과 함께 ‘나’를 이끌고, 그의 말을 이해한 ‘나’는 사실 웃으며 그를 따라간다.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두 사람의 걸음은 유토피아는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찾아 떠나는 끝없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 김영현의 소설 속 인물들은 세상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를, 이뤄지지 못한 옛사랑을, 더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리워하며, 그 그리움은 끝내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 고통을 ‘너무 빨리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와 연관된다. 버틀러는 이 ‘머물러 있음’으로부터 인간의 원초적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김영현의 소설에선 상실의 경험과 그로 인해 유발된 그리움의 정동이 “유토피아를 끝없이 추구하게끔 하는 역동성의 원천”²⁵¹⁾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머물러 있음’의 자세야말로 취약성의 윤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할 때, 자신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을 반복해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김영현의 태도는 그의 문학에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절에서는 이 윤리적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영현 문학이 폭력적 자기동일성에 균열을 일으키고, 죽음에의 각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후자는 특히 ‘애도’의 소설적 구현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영현에게 있어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은 일종의 원체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작가의 의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짚어둔다.

250) 「내 마음의 서부」, 83면.

251) 유성호, 앞의 글, 128면.

3.2. 폭력적 동일성에 균열 내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980년대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기층 집단”을 포괄하는 ‘민중’이라는 복합적 주체가 점차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론에 입각한 ‘노동자’라는 단일 주체로 수렴되어가는 시기였다.²⁵²⁾ 대표적으로 박현채는 농민과 도시 빈민을 민중 구성에 대립과 모순을 낳는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여 민중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현채에 따르면 이는 민중을 구성하는 각 집단의 “원초적인 경제적 인식”을 “정치적 차원에까지 발전”시켜 중국에는 “노동자운동의 주도성, 그리고 노동자적 이해 위에 선 모순의 통일”을 이룩해내는 것을 의미한다.²⁵³⁾ 이와 같은 박현채의 노동자 계급 중심의 민중 담론은 당대의 민중문학·노동문학론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²⁵⁴⁾ 그리하여 1980년대 문학은 ‘혁명적 노동자 계급’의 전형을 올바르게 재현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그 전형은 “열악한 노동 환경, 사회적인 차별과 빈곤으로 고통받지만 투쟁에 앞장서는 건강하고 순결한 존재”²⁵⁵⁾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질적인 욕망의 복합체”²⁵⁶⁾인 민중을 “‘노동자’라는 특권적 주체”²⁵⁷⁾로 통일시키려는 이와 같은 노력은 필연적으로 소외와 배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중의 다기한 삶의 양태는 축소되거나 삭제되기 마련인 까닭이다. 이처럼 “집단적 에토스는 오직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²⁵⁸⁾ 버틀러는 보편적 규범을 작동시키는 이

252) 김정한, 『대중과 폭력』, 후마니타스, 2021, 76면.

253)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 규명」, 『박현채 전집 2』, 도서출판 해밀, 2006, 576-578면. 이 글에서 박현채는 농민을 “자본의 농업에 대한 요구를 좇아”(571면)가면서 점차 사회구성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설명하며, 도시 빈민의 성격을 ‘기생적’이라 규정 짓고 이를 노동계급의 ‘생산자적’ 성격과 대립시킨다.

254)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박현채와 조한혜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2015, 138면.

255) 배하은(2017), 앞의 글, 214면.

256) 강소희, 「‘비-동일성’의 민중을 기입하는 글쓰기— 박태순의 르포와 기행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79, 2019, 8면.

257) 위의 글, 22면.

258)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13면.

러한 폭력을 ‘윤리적 폭력’이라 일컫는다. 버틀리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항상 자기-동일성을 표명하고 유지해야만 하며 타자들 역시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폭력”²⁵⁹⁾을 뜻한다.

민중 담론의 영향하에 놓였던 당대의 비평 또한 전형을 성취하지 ‘못한’ 문학 작품들에 ‘주변성’ 혹은 ‘미달태’라는 낙인을 찍으며 윤리적 폭력에 의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영현의 소설 역시 그러한 낙인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컨대 황광수는 김영현과 김향숙의 소설집을 살피는 글에서 김영현의 「멀고 먼 해후」에 관해 해당 소설의 감각적이고도 세련된 문체는 “노동운동가의 의식에 내장되어 있을 법한 분노와 투쟁의식”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²⁶⁰⁾ 그러면서 그는 두 작가에게 사회 문제의 개인적 차원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변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자계급이나 이들의 변혁 운동 그 자체의 의미”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²⁶¹⁾

이러한 지적은 한편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어 민족·민중문학론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진영이 취했던 전략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이들 진영은 “공격받는 민족문학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기갱신 내지는 자기귀결적 논의”를 펼쳤던 것이며, 그 맞은편에는 민족·민중문학의 이념성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문학성과 예술성”을 90년대적인 문학의 성질로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새롭게 떠오르는 비평의 욕망이 놓여 있었다.²⁶²⁾ 김영현의 「목격자」(『문학과사회』, 1989)를 둘러싼 권성우와 정남영의 논쟁은 이러한 헤게모니 다툼의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두 사람의 논쟁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단연 ‘내면’이다. 정남영은 「목격자」를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²⁶³⁾ 권성우는 「목격자」가 보여주는 “민

259) 위의 책, 75면.

260)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집」, 『창작과비평』, 69, 1990, 416-417면. (강조는 인용자)

261) 위의 글, 420면. (강조는 인용자)

262) 배하은(2017), 앞의 글, 4면.

263) 정남영(1990.6.), 앞의 글, 166면. 정남영은 해당 소설이 등장인물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같은 글, 167면)

중적인 시야의 획득”은 작가의 성공적인 변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한다.²⁶⁴⁾ 오히려 그는 김영현에게 “자기 자신이 치열하게 체험한 이야기를, 내면적인 시선과 복합적인 심리묘사의 방법론적 도움을 받아서, 진솔하게 작품화”할 것을, 말하자면 다시 작가 자신, 즉 지식인의 내면으로 돌아오라고 피력한다.²⁶⁵⁾ 요컨대, 정남영은 김영현에게 민중적인 내면의 전형을 성취해낼 것을, 권성우는 그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소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목격자」에서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중적인 내면 그 자체보다도 “열사와 암살범의 내면에 자리한 위계를 해체”하는 데에 있다.²⁶⁶⁾

이 소설의 서술자 ‘나’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로 추정되는 인물로서, 소설은 자신을 응징하려는 추적자들을 피해 40여 년간 떠돌이 생활을 이어 나가던 ‘나’가 우연히 “80년대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떤 청년의 의문의 죽음을 목격”²⁶⁷⁾하게 된 것을 주요 사건으로 삼고 있다. 부산 송도 앞 바다에 위치한 허술한 가건물에 몸을 누이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나’는 세명의 건장한 사내가 바다에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며칠 후, 한 스쿠버다이버가 시체를 발견하고, 시신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그는 모 대학의 1학년 학생임이 밝혀진다. 이후 경찰은 해당 학생이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청년의 수상쩍은 죽음을 둘러싸고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추악한 은폐의 장막을 찢고”²⁶⁸⁾ 진실을 밝힐 증인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철저히 은폐시킨 “나의 적”²⁶⁹⁾이기도 했기에 ‘나’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얼마간의 고민 끝에 ‘나’는 “이 비굴하고 초

264) 권성우(1990.1.), 앞의 글, 390면.

265) 권성우(1990.9), 앞의 글, 54면.

266) 이소영(2021), 앞의 글, 65면.

267) 김영현, 「목격자」,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146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68) 「목격자」, 163면.

269) 「목격자」, 164면.

라하고 반역적인 생애를 가진 늙은이로 하여금 역사의 빛 속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손짓”²⁷⁰⁾을 따라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앞에 나선다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온 ‘나’에게 있어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작품 말미에 이와 같은 최후의 결정을 내린 ‘나’에게는 어떤 숭고한 아우라가 부여된다.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장재완 열사의 유서는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어리석게도 눈 주위가 나도 모르게 축축하게 젖어오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돌처럼 딱혀 있던 눈물샘이었다. 빗줄기가 가늘게 손등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딱딱한 껍질 속에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휘청 휘청 수은등 빛이 쏟아지고 있는 아파트 뒷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동지들!

이제 저는 가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를!

그러한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들의 가치를!

—부산대생 장재완군의 유서 중에서²⁷¹⁾

이로써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암살자인 ‘나’의 내면은 열사의 내면과 포개지기에 이른다. ‘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에게 있어 이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는 것은 “독재의 손아귀에 목이 눌러 죽어버린 내 칠십 평생의 죽음을 기록하는 일”이자 “내 손으로 내 죽음을 장사지내주는 일”이었던 것이다.²⁷²⁾ 이처럼 민족 위인을 살해한 암살자에게 “모든 것을 은폐시켜 버리는 거대한 폭력적 힘”²⁷³⁾의 존재를 고발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270) 「목격자」, 165면.

271) 「목격자」, 165면.

272) 「목격자」, 148면.

273) 「목격자」, 163면.

저항적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은 명백히 투쟁 주체의 순결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투쟁 주체를 둘러싼 동일성의 신화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폭로는 「목격자」 속 ‘나’의 사례가 보여주듯 (상상된) 단일 주체에 어떤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김영현의 문학은 이와 같은 ‘균열 일으키기’를 통해 복합적인 주체의 형상을 재건하고 있는바, 이어서는 「목격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라는 단일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배제되었던 존재들로부터 변혁과 저항의 장면들을 포착해낸 일군의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 즉 취약성의 경험으로부터 배태된 윤리적 가능성임을 주장할 것이다.

「별」(『현대소설』, 1989)의 서술자인 ‘나’는 김영현과 유사한 내력을 가진 인물이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군대로 끌려 온 ‘나’는 5·17 쿠데타가 터지자 보안대에 소환되어 “지하실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몇 차례나 수도공사(물고문)”²⁷⁴를 당한 적 있다. 초기에는 약간의 “저항적인 몸짓”²⁷⁵을 취해보기도 했지만, 지금의 ‘나’는 군사파쇼체제가 강요하는 질서에 철저히 순응한 채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가 있던 부대에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부대에서 병사들을 전원 집합시킨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삼청교육대상 한 명이 탈출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떠올린다.

부대에 삼청교육대가 수용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군중사병으로서 예배차 그곳에 찾아갔다가 어떤 이가 던진 쪽지를 받게 된다. 그 쪽지를 쓴 사람은 3년 전 ‘나’가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에 서로 알고 지냈던 박용태였다. 이후 ‘나’는 한 달이 더 지난 후에야 차리포대로 지원 보초근무를 나갔다가 박용태와 직접 마주치게 된다. 그는 ‘나’를 지나치며 손에 종이쪽지를 쥐여 주고는 말없이 자리를 떠난다. 쪽지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나’에게 보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자신의 애인에게 남긴 것으로, 박용태는 ‘나’에게 자신을 대신해 그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한

274) 김영현, 「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240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75) 「별」, 239면.

것이였다. ‘나’의 예상대로, 삼청교육대에서 탈출했다는 이는 바로 이 박용태였다. 포대장은 그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며 “수상하게 보이면 즉각 체포하고 가능하면 생포를 하되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²⁷⁶⁾는 명령을 내린다. 박용태 한 명을 잡기 위해 부대원 전원이 수색에 나선 데에 이어 군용 헬리콥터 한 대까지 출동할 만큼 대대장은 해당 사건을 “대간첩작전과 동일한 차원”²⁷⁷⁾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대열을 이뤄 숲속을 돌아다니면서도 내심 그가 잡히지 않길 바란다.

그로 말하자면 일찍이 소매치기의 왕초가 아니었던가, 마네킹에다 옷을 입혀놓고 방울을 달아놓은 다음, 방울소리를 내지 않으면 속주머니의 지갑을 빼내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그였다.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느라 선배 소매치기들로부터 무진장하게 매를 맞았다고 그는 언젠가 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었다.²⁷⁸⁾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박용태라는 인물의 정체이다.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용태는 일찍이 몰래 지갑 훔치는 법을 훈련받은 상습 소매치기범이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불량배 일제 검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폭력사범(강도·절도·치기배 포함), 공갈 및 사기사범(서민착취배 포함), 사회풍토 문란사범(밀수·마약·상습도박 포함)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으나,²⁷⁹⁾ 죄없이 부당한 이유로 끌려간 이들도 많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와 ‘불건전한 생활영위자’라는 모호한 표현과 함께 이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사람들이 삼청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²⁸⁰⁾ 실제로 피해자들의 수기와 각종 취재 기록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문신, 음주 후 고함, 장발, 체불임금 지급 요구 등의 이유로 끌려갔으며, 심지어는 부부 싸움과 택시 기사와의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되어 끌려간 사례도 있었

276) 「별」, 256면.

277) 「별」, 253면.

278) 「별」, 255면. (강조는 인용자)

279)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사회』, 22, 2002, 80면.

280) 손광명,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26면.

다.²⁸¹⁾

위와 같은 사례들과 견주었을 때 상습 소매치기범으로 보이는 박용태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무결하게 억울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결코 삼청교육대 내에서 행해진 가혹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라는 소설이 그러한 가혹 행위의 슬한 피해자 중에서도 ‘소매치기범’을 대표로 삼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논할 때 터무니없는 이유로 끌려간 이들의 사례가 강조된다는 것을 상기해보는 것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²⁸²⁾ 그런데 이처럼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을 논하는 주된 근거로 연행 사유의 부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을 한정 지을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부당한 이유로 끌려 온 이들만이 ‘진정한’ 피해자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발령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삼청교육대는 존재 자체로 위법이었음을 선언했으며²⁸³⁾, 2022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범위를 입소자 전체로 확장시켰다.²⁸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삼청교육대 피해자로서 ‘소

281) 임상혁, 앞의 글, 82면.

282) 예컨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의 ‘삼청교육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폭력배를 일소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검거된 사람들 중에는 어용노조간부의 먹살 한 번 잡았다는 노동자,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사장에게 대들었다는 노동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 논에 물대는 문제로 싸웠다는 농민, 가족회의 중 언성을 조금 높였다고 해서 존속폭행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온 이발사, 몸에 문신이 있다고,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마시고 고성방가 했다고 끌려온 사람들,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온 칠십 노인, 육성회비를 잘 못 거둔 죄에 대한 사표를 거부하다가 끌려온 선생님, 술값 외상이 조금 있다고 끌려온 사람, 계모임을 하다 끌려온 가정주부, 공부하다가 바람 쐬려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단속반과 마주친 죄밖에 없는 재수생, 벌금·구류와 같은 사소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다.”

(“삼청교육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2017.08.21.,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8>)

283) 여현호, 「삼청교육대 만든 1980년 ‘계엄포고 13호’, 첫 ‘위헌·무효’ 결정」, 『한겨레』, 2018.12.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204.html

284) 장예지,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강제입소 자체가 불법…모두 피해구제 해야”」, 『한겨레』 2022.06.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305.html

매치기범'을 내세운 「별」은 피해자를 호명하는 그간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소설은 소매치기범인 박용태를 저항의 주체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무전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로 보아 그는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결코 그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쯤 막사에 남아 그의 탈출로 인해 일종의 공포분위기에 싸여 있을 그의 동료들도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것은 그의 탈출일 뿐만 아니라 간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탈출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절망적인 폭력 앞에 선 연약하고 외로운 한 인간의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반드시 이겨내어야 할 승부였다. 왜냐하면 그 도전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라는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²⁸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사회 통제를 위해 세워진 기구로서, 군부독재 체제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삼청교육대에서 탈출을 감행한 박용태의 행위는 '나'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탈출"로, 다시 말해 삼청교육대가 표상하는 신군부의 "절망적인 폭력"에 맞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외롭고도 결의에 찬 도전으로 의미화된다. 이로써 박용태는 영웅적 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수색 도중 집결지에 모여 식사를 하던 '나'가 밥을 먹다 말고 "어느 틈엔가 눈가가 희미하게 젖어오는 걸" 느끼며 "찢어진 구름 사이로 별 하나"를 보는 마지막 장면은 이를 강화한다.²⁸⁶⁾ 이 대목은 박용태가 '나'의 감옥 옆방에 있던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 가사와 연결되면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별'이란 다름 아닌 박용태를 뜻하는 것임을 암시한다.²⁸⁷⁾

285) 「별」, 259면.

286) 「별」, 261면.

287) 박용태는 아래와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이는 그가 구치소에 돌아다니는 '세계의 명시'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 자신이 직접 곡조를 붙인 것이었다. "나는 창공에 빛난 한 개의 별이래오 /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멸시를 한다오 / 비바람 눈물 속을 걸어간다오", "나는 창공에 빛난 한 개의 별이래오 /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했따오 / 흙바람 눈물 속을 달려간다오" (「별」, 251-252면.)

「엄마의 발톱」(『문학정신』, 1989)은 운동하는 아들과 그 어머니라는 유구한 관계를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소설이다. 명규는 예비 며느릿감을 직접 봐야겠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이 불쑥 올라온 어머니가 불만스럽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농촌 어느 구석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농투산이 아낙네”²⁸⁸⁾로, 명규가 하루빨리 장가를 가 자리를 잡길 바란다. 하지만 현재 명규는 애인 경희와의 사이도 썩 좋지 않을뿐더러, 교도소에 갔다 온 이력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현재의 부정적 상황 위에서 그간 명규가 어머니를 향해 느껴왔던 애증의 역사를 펼쳐놓는 것으로 전개된다. 어린 명규에게 다리를 절고 가난한 어머니는 부끄러운 존재였으며, 이후 대학생이 되어 운동을 하다 감옥으로 끌려간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대의를 방해하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모성애는 벗어나고 싶은 “질기고 끈적한 그물”²⁸⁹⁾일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명규는 모든 잘못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의 모성애에 증오심을 갖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 재판 때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이나 증오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던가”²⁹⁰⁾를 깨닫게 된다. 실상 항소심 재판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명규 또한 별다른 저항 없이 간단한 최후 진술만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일심 형량(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별안간 방청석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온다.

“이놈들아! 차라리 날 잡아넣어라, 이놈들아!”

어머니였다.

“못간다, 못가! 머리채 팔고, 피 팔아서 키운 내 아들 두고 못간다!

네놈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똥 땀에 잡아가둬! 개도독놈들!”

어머니는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에 나뉘쳐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머리는 마구 풀어 헝클어지고 치마가 훌렁 뒤집어져 있었다.

288) 김영현, 「엄마의 발톱」,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화사, 1990, 86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289) 「엄마의 발톱」, 79면.

290) 「엄마의 발톱」, 87면.

그러나 그 정도에 질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더욱 큰소리로 외쳤다.

“군사정권 물러가라아!”

“구속학생 석방하라아!”

어머니의 절규가 법정 밖 복도를 왕왕 울려왔다.²⁹¹⁾

그 순간 어머니가 드러낸 “날카로운 발톱”은 “파쇼에 길들여진 비겁한 법정”에 생채기를 내는 한편²⁹²⁾, 명규로 하여금 어머니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아가 그는 어머니의 싸움과 자신의 싸움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명규가 감옥소에 있을 때도, 싸움은 명규와 저쪽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규를 인질로 한 어머니와 저쪽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었지만 한번도 좌절하거나 패배하지는 않았다. 그에 비하면 명규의 싸움은 겉보기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좌절과 패배와 자기기만의 연속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명규는 문득 부끄러움에 싸였다.²⁹³⁾

그렇다면 이때 어머니의 싸움과 명규의 싸움은 각기 무엇을 뜻하는가? 소설 내에서 어머니와 명규는 ‘잘 살아야 한다’ 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문제로 대립한다. 전자가 ‘가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통과 그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명제라면, 후자는 “민주, 자주, 투쟁, 해방 등의 너무나 추상적”²⁹⁴⁾인 단어의 나열일 뿐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싸움이 생활의 영역에 놓여 있고, 명규의 싸움이 정치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엄마의 발톱」은 둘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거나 전자를 비가시화하는 대신 전자로부터의 깨달음을 후자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그려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이는 명규가 “좌절과 패배와 자기기만의 연속”으로부

291) 「엄마의 발톱」, 88면.

292) 「엄마의 발톱」, 같은 면.

293) 「엄마의 발톱」, 85면.

294) 「엄마의 발톱」, 83면.

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경희와의 관계가 놓여 있다.

외과 의사 아버지를 둔 경희는 ‘운동권’인 명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왔지만, 머지않아 명규의 “형편없는 집안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표하며 그가 표출하는 사회적 불만이 “불우한 가정에서 연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⁹⁵⁾ 명규는 그런 결론은 비상식적일뿐더러 그녀는 “필요 이상의 부와 필요 이상의 시간을 가진 우리 시대의 새로운 귀족”²⁹⁶⁾임을 알면서도 경희를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됐으며,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태어난 자신은 사실 어릴 적부터 “경희처럼 뽀얀 얼굴의 인간들이 사는”²⁹⁷⁾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에 따른 출세욕을 내심 품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계급 차이로 인해 경희와의 결혼은 어려울 것임을, 나아가 사실 자신은 “마음속으로 그런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²⁹⁸⁾임을 고백한다.

경희를 사회적으로 의식 없는 존재로 그려낸 것은 중산층 여성의 삶을 맹목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해온 민중문학 진영의 유구한 전통²⁹⁹⁾을 재생산한 것이라는 점에서 물론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본고는 이 소설의 구조상 명규가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이를 털어놓는 과정에 있어 어머니의 싸움을 목격한 사건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는 노동문학론이 창출해낸 “생산 현장(일터)과 재생산영역(가정) 간의 뚜렷한 위계”³⁰⁰⁾를 동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싸움과 비교했을 때 “명규의 싸움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다”³⁰¹⁾고 서술한 부분이나, 어머니에게서 저항의 가능성을 포착해낸 향소심 재판 장면은 충분히 조명될 만하다.

이밖에도 「차력사」(창작과비평』, 1994)의 경우 차력사 박팔갑산이 나

295) 「엄마의 발톱」, 76면.

296) 「엄마의 발톱」, 같은 면.

297) 「엄마의 발톱」 87면.

298) 「엄마의 발톱」, 90면.

299) 손유경, 앞의 글, 148면.

300) 손유경, 앞의 글, 143면.

301) 「엄마의 발톱」, 87면.

이트클럽에서 선보이는 차력쇼는 서술자 ‘나’에 의해 “우리들이 사소한 삶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원초적이고 존재론적인 생명력 같은 것”³⁰²⁾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서술되며, 이는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이 표상하는 속물주의를 내파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친구인 정군과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탓에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일단 모임에 나오긴 했으나,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의 친구(이과장³⁰³⁾)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에 어울리게 된 것이 영 거북하고 불쾌하다. 그리하여 몇 번이고 이만 집에 돌아가리라 생각하지만 “단지 몇 푼의 돈 때문에”³⁰⁴⁾, 즉 정군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유흥의 유혹에 못 이겨 선불리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러던 중 나이트클럽 측에서 준비한 쇼의 일환이었던 박팔갑산의 차력쇼는 ‘나’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해 “지금까지 술과 춤과 별 거벗은 여자들의 몸뚱이에 뉘을 잃고 있던 무리들”을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³⁰⁵⁾ 그리하여 ‘나’는 박팔갑산이 떠난 뒤 지체 없이 자리를 나선다. 이제 ‘나’에게 휘황한 조명과 요란한 조명은 “모두 빈 껍데기처럼 보일 뿐이었다”.³⁰⁶⁾

또한,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집시 아저씨」(『창작과비평』, 1992)는 ‘나’의 감옥 옆방에 있는 사내의 목소리를 빌려 서커스단을 따라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마술사 집시 아저씨가 국회의사당에서 일생일대의 마술을 선보이며 국회를 어지럽히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사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본래 집시 아저씨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는데,³⁰⁷⁾ 신군부 정권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몹쓸 일

302) 김영현, 「차력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작과비평사, 1995, 187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03) 모 종합상사의 과장으로 있는 그는 “첫눈에도 매우 뻔뻔스러운 인상”과 “탐욕스러워 보이는 눈빛”의 소유자였으며, “그의 몸에서는 웬지 모르게 사람을 거북하게 만드는 남성용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차력사」, 176면.) 이 날의 술자리는 그가 방콕에서의 근무를 무사히 끝마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304) 「차력사」, 177면.

305) 「차력사」, 187면.

306) 「차력사」, 202면.

307) 그는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자신은 촌에서 금방 올라와 “그런저런 내용을 알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입에 풀칠하는 것”이 바빴으며, 5.16 군사 정변 당시에는 깡패도 건달도 아닌 약장수 아저씨(집시 아저씨의 선생이자 동업자)가 어째서 ‘나는 깡패입니다’라고 쓰인 표찰을 가슴에 달고 행진하는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인지 “그때는 정말 알 수가

들을 당한 것을 계기로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앉아 있는 국회의사당에서”³⁰⁸⁾ 마술을 공연하리라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국회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서서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방청석이건 의원석이건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졸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어서 내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선 순간, 어디선가 총소리가 났다. 소리의 출처는 집시 아저씨의 손에 들린 장난감 권총이었다. 그 즉시 국회에는 소란이 일었지만, 집시 아저씨는 그 어떤 동요하는 기색도 없이 자신의 마술을 계속해 나갔다. 머지않아 그는 경위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말지만, 그가 “신성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행위”³⁰⁹⁾를 거행했음은 변치 않은 진실로 남아 그날의 마술쇼를 목격한 사내에 의해 ‘나’에게도 전달된다.³¹⁰⁾

이처럼 김영현은 ‘노동자’라는 단일한 주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을 등장시켜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들)을 모색한다. 이들은 암살범에서 소매치기범, 어머니, 차력사, 마술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으로 살펴본 김영현의 소설들은 “노동자라는 동일성에 ‘비동일성’의 존재를, 민중이라는 전체에 ‘비전체’의 타자를 기입”³¹¹⁾하고자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동일성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완벽한 자기동일성의 불가능성을 내보인다는 점에서 버틀리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버틀리에 따르면 “자아는 자기 내부에 머무르기 불가능하다고 밝혀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자기 밖에 있어야 하고 자기 밖에서 행동한다”.³¹²⁾ 이는 우리가 인간 존재의 원초적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루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기동일성의 불

없었다”고 밝힌다. (김영현, 「집시 아저씨」,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작과 비평사, 1995, 281면, 283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08) 「집시 아저씨」, 287면.

309) 「집시 아저씨」, 292면.

310) 이는 집시 아저씨가 바란 바이기도 했다. 국회의사당에 입장하기 전, 집시 아저씨는 자신을 따라온 사내에게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고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일 이니까. 다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오.”라고 말한다. (「집시 아저씨」, 288면.)

311) 강소희(2019), 앞의 글, 24면.

312) 주디스 버틀러(2013), 앞의 책, 52면. (강조는 원문)

가능성 또는 상호의존성을 깨닫는 것은 취약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으며, 취약성의 경험은 그 출발점이 되어준다. 우리의 존재가 취약해지는, 다시 말해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를 배제와 소외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의 근본적 구조에 대해 성찰하도록 이끈다. 김영현에게는 감옥이 바로 그러한 경험의 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 살펴본 소설들에서 ‘비-노동자’ 주체로부터 저항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술자 또는 초점 화자가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감옥에 갇혀 있다는) 설정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3.3. 죽음에 대한 감수성과 애도의 문제

인간 존재의 취약성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기 마련이라는 명제에서도 발견된다. 김영현은 이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해 오래도록 관심을 두어 왔다. 그의 등단작인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1984)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집안의 내력이 밝혀지는 내용을 담고 있거니와, 2장 2절에서 살펴봤듯 김영현의 소설에는 ‘솔한 죽음’들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2015, 이하 『유쾌한 명상』)은 이 같은 죽음을 향한 작가의 오랜 관심을 마침내 한 권의 수필집으로 담아낸 결과물이다. 김영현은 이 책에서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전한다. 그 범위는 종교부터 철학, 역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다. 이를 통해 김영현은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한다.

인간은 흔히 ‘공포 관리 이론’ 또는 ‘불멸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³¹³⁾ 이는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는바, 이로 인해 “전체의 생존이나 진화”만이 중요시됨에 따라 “각 개체는 전체를 통해 자기 생명의 연속성,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³¹⁴⁾ 이로써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완화된다.³¹⁵⁾ 하지만 집단성은 그 본래적 성질로

313) 이와 관련해 김영현은 『그래,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자고』(사회평론, 2014)라는 또 다른 철학 수필집에서 “‘죽음’이란 ‘있는 것’이 갑자기 ‘없는 것’이 되는 것”(267면)으로서 ‘그것’과 ‘그것 아님’의 무한한 연속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절이 일어나기에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김영현은 ‘과학적 시간(물리적 시간)’과 ‘철학적 시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만의 시간론을 전개해 나간다. 김영현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객관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 존재는 ‘그것’과 ‘그것 아님’ 또는 ‘유(有)’와 ‘무(無)’의 무한한 연속을 따르기 마련이다. 김영현은 이로부터 “모든 존재는 ‘있음’을 주어로 하지만 ‘없음’을 강력한 술어로 내포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있음’의 현재에서 ‘없음’의 미래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251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죽음’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한편, 김영현이 이 책의 서문에서 시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품게 된 것은 1977년 겨울 무렵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0.7평의 독방에 수감되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14) 김영현,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시간여행, 2015, 157면. 이하 해당 책을 인용할 때에는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15)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158면.

말미암아 집단 바깥의 적을 상정함으로써만 강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집단성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공격적”³¹⁶⁾인 형태로 발현되고 마는 결과를 낳는다. 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진다.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현은 먼저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탐구를 행한다. 모든 생명체는 이산화탄소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죽은 인간의 몸은 썩거나(매장의 경우) 재로 변해(화장의 경우) 이산화탄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조류와 식물의 영양소가 되어 다시 생명계 안에서 순환한다”.³¹⁷⁾ 이렇게 본다면 삶과 죽음은 이산화탄소의 순환 과정 중에 놓여 있는 한 단계에 불과하며, 우리 몸은 “분자와 원자의 끝없는 순환 도중에 생겨난 일시적인 조합”³¹⁸⁾일 뿐이다. 다음으로 김영현은 이와 같은 ‘덧없음’에 대한 자각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니체의 ‘운명애(Amor fati)’ 개념이 보여주듯이 “적극적인 자기 부정은 적극적인 자기 긍정으로의 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¹⁹⁾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나’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취약성의 윤리의 첫걸음이다. ‘나’의 취약성에 대한 인지는 ‘너’의 취약성에 대한 인지로 이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물리적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³²⁰⁾을 지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중요해지는 것이 다름 아닌 ‘애도’라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애도’란 ‘너’의 죽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이 절에서 살펴볼 김영현의 소설들은 바로 이 애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영현 문학이 ‘열사의 정치’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출발해 ‘애도의 정치’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316)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159면.
 317)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57면.
 318)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59면.
 319)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140면.
 320) 주디스 버틀러(2018), 앞의 책, 60면.

1980년대 운동권을 추동했던 것은 단연 ‘열사의 정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태일’로 대표되는 “투쟁을 위해 자기희생을 불사하는 거짓 없고 순수한 노동자/노동열사의 표상”³²¹⁾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사의 정치는 열사를 윤리적으로 특권화하고, 열사가 되지 못한, 즉 죽음을 결단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책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바, 필연적으로 죽음의 반복과 재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열사’라는 존재가 유발하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1980년대 운동권의 집단적 심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운동을 위한 윤리적 동원의 기제”로 기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²²⁾ 하지만 이것이 ‘죽음의 정치’라는 형태로 작동되었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살아남은 자를 ‘아직 죽지 않은 자’로, 즉 “열사의 잠재성”을 가진 생명”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인간 존재로서의 생명 가치”를 경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³²³⁾ 이런 점에서 열사의 정치는 폭력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영현의 「멀고 먼 해후」(『문학과비평』, 1989)는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이와 같은 폭력성을 폭로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초점 화자 ‘그’가 준호와 순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 심문을 당하는 부분과, 서술자 ‘나’가 그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준호 그리고 순범 세 사람은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길거리에는 군인들이 탱크 옆에서 있고, 계엄령은 연일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노조 역시 사실상 힘을 잃어가는 와중에 위원장이었던 준호만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방안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압 투병 중인 순범을 지목한다. “그는 어차피 죽을 목숨”³²⁴⁾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그런 준호를 만류하지만, 준호는 “그는 스스로 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죽음이 얼어

321) 배하은(2017), 앞의 글, 224면.

322)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4, 2013, 90-91면.

323) 김미라,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묵’ 모티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27면.

324) 김영현, 「멀고 먼 해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화사, 1990, 13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불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길을 붙여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순범을 설득하기에 나선다.³²⁵⁾

“너는 벌레처럼 발버둥치다가 죽고 말 거야.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몰핀주사를 맞고 성경을 보구……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죽을 거야.”

“제발, 그만둬!”

“순범이, 잘 생각해봐.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야. 우리는 너의 그 허물어져가는 몸뚱어리가 필요해. 그 몸뚱어리에 불을 붙여 햇불처럼 들고 나가면, 모두의 가슴에 암처럼 버티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

“적을 죽일 수 없을 때, 적과 동지의 양심을 동시에 난타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³²⁶⁾

준호가 내세우는 논리는 당위와 의무에 근거한다. 그는 죽어가는 몸을 잠시라도 더 보전하려는 순범을 ‘벌레’라 매도하며 그에게 열사로서 죽을 것을 강요한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바, ‘윤리’라는 이름의 폭력에 불과하다. 버틀러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적 폭력에 근거한 판단은 판단 당한 자의 “윤리적 성찰과 행위에 필요한 능력들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고 가끔은 자살로 귀결된다”.³²⁷⁾ 준호가 순범에게 “스스로 햇불이 되어 산화되길”³²⁸⁾ 권하는 장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순범은 준호의 말을 따르기로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번복하고, 준호는 “분신에 실패할 경우 순범이에게 주기로 한”³²⁹⁾ 알약을 자신이 삼켜버린다. 그러나 그의 때 이른 죽음은 어떠한 효과도 낳지 못한 채 그저 자살 행위에 그치고 만다. 즉, 그는 열사가 되고자 했지만 열사가 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이처럼 「멀고 먼 해후」

325) 「멀고 먼 해후」, 13면.

326) 「멀고 먼 해후」, 16-17면.

327) 주디스 버틀러(2013), 앞의 책, 88면.

328) 「멀고 먼 해후」, 18면.

329) 「멀고 먼 해후」, 26면.

가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그것의 지속 불가능성을 드러낸다면,³³⁰⁾ 이하에서 살펴볼 소설들은 ‘애도의 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해남 가는 길」(『현대소설』, 1991)은 1991년 5월의 분신 정국을 배경으로 한다.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1991년 5월 투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991년 5월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강경대 사건이었다. 1991년 4월 26일, 당시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는 학원 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및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시위 중 백골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뒤이어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가 강경대 사망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에서 분신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분신자살이 잇따르며 1991년 5월 투쟁이 전개되었다.³³¹⁾ 그러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³³²⁾과 6월 3일 외대사건³³³⁾이 발생하면서 5월 투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만다. 두 사건으로 인해 사회운동 세력 전체가 반인륜적인 집단

330) 강소희(2018), 앞의 글, 110면.

331) 1991년 5월 투쟁의 주요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한, 앞의 책, 188-189면 참조.)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한 폭행·사망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분신(5월 19일 사망)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분신(5월 2일 사망)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분신·사망
5월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의문사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분신·사망
5월 10일	광주 윤용하 분신(5월 12일 사망)
5월 18일	연세대 철교에서 이정순 분신·사망
	전남 보성고 김철수 분신(6월 1일 사망)
	광주 운전기사 차태권 분신
5월 20일	광주 권창수 시위 도중 진압 전경에 의한 폭행·중태
5월 22일	광주 정상순 분신(5월 29일 사망)
5월 25일	성균관대 김귀정 시위 도중 질식사
6월 8일	인천 삼미 캐연 노동자 이진희 분신(6월 15일 사망)
6월 15일	공성교통 택시 노동자 석광수 분신(6월 24일 사망)

332)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분신자살과 관련하여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12월 강기훈은 국가보안법 위반 1년, 자살방조죄 2년으로 총 3년 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강기훈은 24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333)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정원식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마지막 수업에 출강하자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이 분노하여 달걀·밀가루를 집단으로 투척한 사건.

으로 매도당하며 5월 투쟁은 대중의 지지를 잃고 빠르게 소멸해갔던 것이다. 이처럼 그 당시 대중이 “지배 세력에 의한 이 같은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묵인”³³⁴⁾했다는 사실은 5월 투쟁 자체에 대한 재사유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1980년대 사회운동에 대한 내재적 성찰의 계기”³³⁵⁾가 마련될 수 있다.

1991년 5월 투쟁을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폭력’과 ‘죽음’의 기호였다.³³⁶⁾ 그러나 이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죽음)과 6월 3일 외대사건(폭력)이 보여주듯이 5월 투쟁을 소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정한은 여기서 확인되는 ‘죽음’과 ‘폭력’에 대한 대중의 양면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중은 자신을 위협하는 폭력으로부터 공포를 경험하고 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봉기한다. (...)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대중은 또 다른 공포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완화·경감하기 위해 대중운동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자 한다.”³³⁷⁾ 그러므로 1991년 5월 투쟁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폭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열사의 정치’의 유효함에 대해 되묻고 새로운 정치를 구상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이상으로 1991년 5월 투쟁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해남 가는 길」로 돌아올 차례다. 이 소설은 1991년 5월의 분신 정국을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문성태가 시인 고정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남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한편, 고정희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당시 문성태는 1990년 2월 서울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져나간 연쇄 방화 사건(일명 ‘도깨비불’)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1991년 5월에 연이어 일어난 분신자살 사건을 연상시킨다.

334) 김정한, 앞의 책, 39면.

335) 김정한, 「도래하지 않은 혁명의 유산들: 1991년 5월 투쟁의 현재성」, 『문화과학』, 66, 2011, 181면.

336) 5월 투쟁의 발단이 되었던 강경대 사건의 경우 원인으로서의 ‘폭력’과 결과로서의 ‘죽음’이 확인된다면, 박승희 분신자살 사건을 위시하여 5월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연달아 일어났던 분신자살은 ‘죽음’을 수단으로 삼아 ‘폭력’에 대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그 자체로 대항‘폭력’이기도 했다.

337) 김정한, 앞의 책, 165면.

문성태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빠져 나오면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어느 여학생’의 죽음을 떠올리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곧바로 “그 모든 것들도 잠시 동안 안녕이다. 그래, 안녕이다”³³⁸⁾라고 되뇌는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잠에 든 문성태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친구와 수배 중인 친구를 비롯한 여러 얼굴들, 죽음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거나 죽음의 굿판을 때려치우라 말하는 음습한 목소리³³⁹⁾, 길거리에 걸집한 수십만 사람들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오는 페퍼포그 차의 이미지 등이 등장하는 꿈을 꾸다.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은 채로 잠에서 깬 문성태는 “부활 없는 죽음의 시절”³⁴⁰⁾이었던 지난 5월, 고정희와 퇴계로에서 만났던 날을 회상한다. 그 회상의 과정에서 ‘강경대’, ‘김귀정’(이 대목에서 김귀정 열사는 ‘어느 여학생’에서 ‘성균관대 삼학년 김귀정’으로 호명된다)과 같은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이후 문성태는 광주에 도착해 병원 영안실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뒤, 해남의 장지에 따라가 성토까지 한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끝마치고서 그는 “고정희도, 쓰다 만 ‘도깨비불’의 이야기도 모두 잊어버려야겠다”³⁴¹⁾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문성태가 고정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서사를 통해 “고정희뿐만 아니라 5월에 목숨을 내놓고 사라진 이들의 죽음까지도 ‘애도’하는 구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³⁴²⁾ 그리고 이 애도는 (분신 자살을 표상하는) ‘불꽃’과는 대비되는 ‘꽃’의 민중성과 생명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정상적인 애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란 대상에 부과되었던 리비도를 철회하여 그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에게로 투여함으로써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이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슬픔의 작용은 현실성 검사에 따라 언젠가 완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랑하던 대상에 여전히 고착해 있는 것은

338) 김영현, 「해남 가는 길」, 『해남 가는 길』, 솔, 1992, 97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39) 이는 각각 김기철의 분신 직후 이뤄진 서강대 박홍 총장의 기자회견(“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과 김지하의 기고문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조선일보』, 1991.05.05.)을 의미하는 것이다.

340) 「해남 가는 길」, 99면.

341) 「해남 가는 길」, 120면.

342) 이소영(2021), 앞의 글, 70면.

‘우울증’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현실에 등을 돌리는 일”에 다름 아니다.³⁴³⁾

하지만 데리다는 프로이트식의 성공적인 애도를 “타자를 내면화하는 일종의 폭력”으로서 오히려 실패한 애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데리다에게 있어 성공적인 애도는 타자를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고 망각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타자로서” 기억하는 것이다.³⁴⁴⁾ 그런 이유로 프로이트에게는 “타자를 잊는 여정의 시작”인 ‘죽음’이 그에게는 “타자를 기억하는 여정의 시작”이 된다.³⁴⁵⁾ 이처럼 「해남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애도의 완수가 실상 애도의 실패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분신 정국에 대한 문성태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소설을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는 “새벽마다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닦치는 대로” 방화를 하고 다니는 주인공 배명식을 통해 “그 광기의 뿌리에 바로 파렴치하고 몰염치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부도덕한 지배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했지만,³⁴⁶⁾ 소설은 그의 의도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 문성태는 ‘연쇄 방화’라는 행위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야유이고 조롱일 뿐 진지한 작가가 모색해야 할 주제가 되질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³⁴⁷⁾ 그리고 이는 ‘도깨비불-연쇄 방화-분신자살-불꽃’이 “정치없는 분노”³⁴⁸⁾에 수렴되는 결말로 이어진다. 요컨대, 분신자살이라는 죽음을 단순화하는 식의 태도에 이미 애도의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6년 뒤 발표된 「내 마음의 망명정부」(『실천문학』, 1997)는 데리다식의 애도를 실천함으로써 「해남 가는 길」에서 그려졌던 (애도의 성공으로서의) 애도의 실패를 수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소설에 또 한 명의 배명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남 가는 길」에서는 문성태의 소설 속 광기에 어린 주인공이었던 연쇄 방화범

343)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243-246면 참조.

344) 홍승진, 「해방 전 임화 시의 문명 비평적 애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23면.

345)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58(4),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87-788면.

346) 「해남 가는 길」, 87면.

347) 「해남 가는 길」, 88면.

348) 「해남 가는 길」, 118면.

배명식이 「내 마음의 망명정부」에서는 태영의 죽은 대학 후배로 새로이 등장한다. 소설은 그가 어떤 경위로 죽게 되었는지 끝내 밝히지 않음으로써 「해남 가는 길」과는 다르게 그의 죽음을 선불리 재단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태영이 장학수로부터 배명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그간 잊고 있었던 봉천동 산동네 시절의 기억들을 파편처럼 떠올리는 모습만을 그려낼 뿐이다. 그러한 태영의 회상 속에서 배명식은 “무척 선량하고 부드러운 친구”로, 그 시절은 “즐거웠던” 시절로 의미화된다.³⁴⁹⁾

한편, 이 소설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백문조의 죽음은 배명식의 죽음과 나란히 놓이면서 도입부에서는 어떤 죽음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며, 결말부에서는 애도의 실패를 암시한다. 어느 날 아침, 태영은 아내로부터 베란다에서 키우던 백문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그에 태영은 생기를 잃은 새를 새장에서 꺼내와 물을 먹이고, 새가 수돗물에 각각거리는 것을 보고서 물 고문의 경험을 연상한다.

인간이 물 고문을 받을 때도 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곤 한다. 그 생각을 하자 태영은 갑자기 목젓까지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제기랄.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두운 지하실. 낯선 사내들…… 그 끔찍했던 비명 소리……

(…)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아무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되돌아켜보고 싶지 않은 한때의 악몽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눈물과 가슴을 뒤흔들던 아우성과 페퍼 포그 차와 그 많았던 만장, 그 많았던 불의 죽음, 그 많았던 노래까지도……³⁵⁰⁾

“그 많았던 불의 죽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 역시 1991년 5월의 분신 정국과 관련을 맺고 있다. 추측하건대 태영은 1991년 5월 투쟁

349) 김영현, 「내 마음의 망명정부」,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72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50) 「내 마음의 망명정부」, 41면. (강조는 인용자)

중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적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 시절을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는 백문조의 죽음을 계기로 그때를 회상하게 된다. 몇 분 후, 새는 “마침내, 그리고 이미 어렴풋하게 예상했던 대로”³⁵¹⁾ 죽어버리고, 태영은 새의 주검을 처리하기 위해 흙삽을 챙겨 ‘굳이’ 야산으로 향한다.³⁵²⁾ 산에 오른 그는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파 새의 주검을 넣고 흙을 덮어준 뒤, 그 위에 낙엽들을, 또 그 위에 눈을 덮어준다. 이것으로 일종의 장례 절차가 다 끝난 셈인데, 「해남 가는 길」의 문성태와 달리 태영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순식간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간단하게,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새의 장례가 끝난 것이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태영의 마음을 무겁고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것과 자신의 관계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보낸 길고 긴 봄날과 여름, 그리고 가을의 술한 날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생마저도, 이렇듯 가벼운 것이었던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던 것이다.³⁵³⁾

이 대목을 보건대, 태영은 애도의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배명식이 죽었다는 소식만을 느닷없이 전해들을 뿐, 배명식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³⁵⁴⁾ 끝으로 소설의 결말부에서 태영은 흰 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꿈을 꾸다. 그 꿈에서 태영은 “백문조 한 마리가 무덤에서 나와 눈부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³⁵⁵⁾을 본다.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장면은 희망에 찬 ‘부활’보다도 잃어버린 대상은 죽음의 세계로 도무지 ‘떠밀려지

351) 「내 마음의 망명정부」, 44면.

352) 여기서 ‘굳이’라는 부사를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대목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가다가 쓰레기통에 슬쩍 버리는 것일 것이다. 분리 수거 때문에 말이 많다 하지만 그 까짓 새 한 마리 죽은 것 슬쩍 던져 놓고 간대도 누가 뭐랄 것인가. 아니면 연립 주택 어귀의 숲길에 던져도 되리라. (...) 그러나 태영은 그 작은 주검을 휴지에 싸고 비닐 봉지에 담았다.” (「내 마음의 망명정부」, 45면.)

353) 「내 마음의 망명정부」, 48면.

354) 애초에 이 소설은 배명식의 장례식에 대해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물론 의도적인 누락이리라 생각된다.

355) 「내 마음의 망명정부」, 74면.

지' 앎음을, 즉 “살아있는 사자”³⁵⁶⁾로 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돌아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태영의 입가에는 “알 듯 말 듯한 희미한 미소가 배어 나왔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떨어”진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³⁵⁷⁾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애도 역시 끝날 수 없다. 요컨대, 「해남 가는 길」이 애도를 완수함으로써 애도에 실패했다면, 「내 마음의 망명정부」는 애도에 기꺼이 실패함으로써 애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5월 분신 정국을 다룬 김영현의 두 작품은 “만일 애도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 것”³⁵⁸⁾이라는 역설을 입증하는 텍스트인 것이다.

이후 김영현의 소설에는 이 ‘실패함으로써 성공하는 애도’를 실천하는 인물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점골에서 생긴 일」(『동서문학』, 2003)과 「라일락 향기」(『본질과 현상』, 2008)가 그러하다. 「점골에서 생긴 일」은 수인을 초점 화자로 삼아 그가 연고도 없는 어느 시골의 오래된 집을 사들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그곳을 글 쓰는 작업실로 쓸 생각이었던 수인은 집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해묵은 물건들을 불로 태운다. 그 과정에서 수인은 “갑자기 자기가 지금 태우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남은, 버려진 살림살이가 아니라 한 가족이 몸 부비며 살았던 한 세월이라는”³⁵⁹⁾ 것을 깨닫게 된다. 그로 인해 어떤 ‘죄책감’에 휩싸인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점점 자기 역시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³⁶⁰⁾음을 느끼면서 그 언젠가 이곳에 살았을 이들의 소리를 듣는다. 이들은 되살아난 사자(死者)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수인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지워 버리기보다는 차츰 그들 흔적 위에 자기들의 흔적을 덧칠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³⁶¹⁾을 품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지우거나 망각하지 않으려는 태

356) 왕철, 앞의 글, 795면.

357) 「내 마음의 망명정부」, 74면.

358) 페넬로페 도이처, 「HOW TO READ 데리다」, 변성찬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7, 129면.

359) 김영현, 「점골에서 생긴 일」, 「라일락 향기」, 실천문학, 2008, 238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360) 「점골에서 생긴 일」, 242면.

361) 「점골에서 생긴 일」, 243면.

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영현이 밝힌바 T.S.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모티프를 따온³⁶²⁾ 「라일락 향기」는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집에서 살아가는 노모와 그녀의 아들인 사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네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소설은 각 에피소드마다 특정 인물의 발화를 전면내세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모자정담(母子情談)’에서 어머니는 그 누가 아무리 큰돈을 제시한다 해도 자신은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그녀가 집 안 곳곳에서 죽은 남편의 흔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 어디에서나 남편의 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리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고, 남편의 잔기침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사내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 ‘매장(埋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사내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시들해진 라일락을 마당에 옮겨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오래전 아버지와 일화를 떠올린다. 이는 사내의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미야)가 죽자 아버지가 화단 한구석에 그것의 무덤을 마련해주던 날의 기억이었다. 사내는 아래와 같이 그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한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지. 죽은 고양이는 어디로 갔느냐고…….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냉장고에서 얼음조각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어. 그러곤 무슨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 얼음을 보라고 했어. 얼음은 어느새 물로 변해 있었지. 그때 아버지는 말했어. 얼음이 어디로 갔느냐고. 나는 물이 되어버렸다고 했지. 그러자 아버지는 그 물을 뜨거운 불 위에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지. 나는 수증기가 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어.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어.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은 아니야.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고양이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 마당 어딘가에 떠돌고 있어. 그의 몸은 거름으로 변해 나무도 되고 꽃도 되지.³⁶³⁾

362) 김영현, 「작가의 말」, 『라일락 향기』, 실천문학, 2008, 317면.

363) 김영현, 「라일락 향기」, 『라일락 향기』, 실천문학, 2008, 69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그러나 사내가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이 세상에 미야란 고양이는 없
어. 그의 노란 눈동자도 야옹 하고 울던 게으른 울음소리도…… 그건 엄연
한 사실이었어”³⁶⁴)라고 덧붙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후 사내는 마당 한쪽 의자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집배원을 발견하고, 소설은 세 번째 에피소드인 ‘늙은 집배
원’으로 이어진다. 소재목에서도 나타나듯 해당 에피소드는 집배원의 발화를
중심으로 한다. 집배원은 이 집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내의 어머니를 은근
하게 홍보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너무 오래되
었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진즉에 허물고 다시 지어야 했던 집이야”³⁶⁵)라
고 말한다. 그 말은 사내에게 “가슴 가득 이상한 절망감”³⁶⁶)을 안기고, 이
후 집배원이 떠나가는 것으로 해당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끝으로 네 번째 에피소드인 ‘부활(復活)’에는 다시금 사내의 목소리가 전
면에 등장한다. 사내는 자신이 옮겨 심은 라일락 나무를 바라보며 “모든 존
재하는 것들은 누구에 의해 저 시간의 무덤 속으로 스며 들어가버린단 말인
가?”³⁶⁷)와 같은 물음을 떠올리던 중 문득 어디선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고, 실제
로 미야와 똑같은 무늬를 한 고양이가 담장 밑에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고
양이를 품에 안고서 “그래. 불쌍한 것. 네가 다시 시간의 강을 건너 내게
왔구나. 부활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것이지.”³⁶⁸)라고 말한다.

이를 계기로 사내는 시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
련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후 소설은 ‘오늘 밤엔 그 모든 흔적들이 부활
하는 꿈을 꾸고 싶다’는 사내의 소망과 함께 끝난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어머니와 집배원을 통해 죽음(혹은 상실)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³⁶⁹), 사내가 라일락 나무를 옮겨 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어머니

364) 「라일락 향기」, 70면.

365) 「라일락 향기」, 75면.

366) 「라일락 향기」, 같은 면.

367) 「라일락 향기」, 78면.

368) 「라일락 향기」, 80면.

369) 이 중 어머니가 테리다식의 애도를 수행하는 인물이라면, 집배원은 프로이트식의 애도

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현은 죽음의 문제에 꾸준히 천착해 왔다. 그의 소설은 죽음의 반복과 재생산의 형태로 작동하는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에서 출발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애도의 정치’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차츰 나아갔다. 이 여정의 밑바탕에는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핵심적인 계기로서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육체적 고통은 언제나 죽음을 모방하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은 언제나 모의 처형”³⁷⁰인바, 그는 이미 감옥에서 한 차례의 유사-죽음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의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김영현의 각별한 관심은 『낮선 사람들』(2007), 『누가 개를 쏘았나』(2014), 『열세 번째 사도』(2023) 등의 근작들이 하나같이 어떤 대상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낮선 사람들』은 최문술이라는 한 노인이, 『누가 개를 쏘았나』는 월영리라는 작은 마을의 개 두 마리가, 『열세 번째 사도』는 윤기철이라는 종교학과 교수가 죽은 사건이 발단이 되어 본격적인 줄거리가 전개된다. 그리고 세 소설은 모두 이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 중에 뜻밖의 진실이 발견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를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70) 일레인 스캐리, 앞의 책, 47-48면.

4. 결론

한국 문학사에서 김영현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목은 극히 한정적이다. 이른바 ‘김영현 논쟁’이 바로 그것으로, 해당 논쟁은 다가오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80년대와의 분리를 통해 90년대 문학을 새롭게 의미화하려는 권성우의 비평적 의지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나 권성우에 의해 새 시대를 열어젖힐 전도유망한 문학으로 호명된 김영현의 문학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문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 논문은 그 까닭을 김영현의 문학이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과 ‘진정성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주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대신 김영현의 소설을 ‘고문 피해자의 내면’이라는 렌즈로 읽어낸다면, 그의 문학은 ‘취약성의 윤리’와 관련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글에서 ‘취약성’이란 주디스 버틀러의 사유에서 참고한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언제든지 상처 입고 훼손당할 수 있는 ‘몸’과 관련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의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은 취약성과 관련한 일종의 원체험에 해당하며, 이 원체험은 그의 문학 곳곳에 여러 흔적들을 남겨 놓았다. 2장에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좇아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2장 1절에서는 ‘감옥 안’에서의 고통을 생생히 묘사한 「별레」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작품은 김영현의 문학 세계를 집약하고 있는 근원적인 텍스트임을 주장하고자 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지대로 추락한 ‘벌거벗은 생명’을 등장시켜 감옥 안에서 육체적 고통이 해체되어가는 ‘파괴(당)하기’ 과정과 이 고통의 경험을 글로 다시 써 내려가는 ‘창조하기’ 과정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김영현에게 있어 소설 쓰기란 ‘말할 수 없음’과 ‘말할 수 있음’ 사이에서 증언을 이어나가는 윤리적 실천이자 ‘파괴(당)하기’의 과정을 뒤집음으로써 ‘창조하기’를 복원시키는 부단한 수행임을 암시한다.

2장 2절에서는 그러한 실천과 수행의 일환으로서 ‘감옥 밖’으로 나온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고문 피해자 인물 유형을 그린 소설들을 살폈다. 특

히 이들이 보이는 감옥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에 주목해 그와 같은 심리의 원인을 추적하고자 했다. 김영현이 제안한 ‘군사독재 증후군’이라는 조어의 착안점이 되어준 ‘이차대전 증후군’을 참조해보면, 그러한 태도는 수용소 또는 감옥에서 나온 이들이 겪는 두 가지 상실, 즉 이상의 상실과 타인의 죽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김영현의 소설 속 고문 피해자 인물들이 보여주는 양가적 태도는 기실 또 다른 고통의 표현일 뿐임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위와 같은 고통의 경험이 김영현의 소설에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 즉 버틀러적 의미에서의 ‘취약성’의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했음을 내보이고자 했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그 일차적 조건으로서의 ‘머무름’의 태도가 나타난 김영현의 소설들을 살피고자 했다. 김영현의 소설 속 인물들은 상실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움의 정동은 김영현의 소설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역동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실의 슬픔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자 하는 자세는 ‘취약성의 윤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을 반복해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김영현의 태도는 그의 문학에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3장 2절과 3절에서는 김영현의 소설에서 ‘취약성의 윤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3장 2절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일한 주체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암살자, 소매치기범, 어머니, 차력사, 마술사)로부터 저항의 가능성을 길어낸 김영현의 소설들이 폭력적 동일성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자기동일성의 허상을 폭로한다는 것을 짚어냈다. 이처럼 자기동일성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것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취약성의 윤리’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끝으로 3장 3절에서는 김영현은 ‘죽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지닌 작가이며, 그의 소설은 ‘애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이하고자 했다. 특히 김영현의 소설이 ‘열사의 정치’에 내재한 폭력성을 폭로하는 데에서 출발해 ‘애도의 정치’를 향해 차츰차츰 나아간 과정을 살폈다. ‘취약성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

어서 애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평등한 애도 가치의 확립을 통해 취약성(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비폭력적인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은 김영현의 감옥 체험 및 고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취약성’에의 예민한 감각을 지닐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그의 문학에 윤리적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의 소설이 “대표와 잔여를 분리·호명하는 포섭과 배제의 이중적 전략”³⁷¹⁾을 따르는 ‘운동권’의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넘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김영현의 문학을 ‘취약성’의 개념으로 다시 읽어내는 것은 김영현의 ‘고문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인바, 김영현 논쟁이 촉발된 이후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던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의 내면’이라는 틀을 탈피하는 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영현의 문학을 ‘자유주의 진영 대 민족주의 진영’, ‘1980년대 문학 대 1990년대 문학’이라는 유구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난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김영현의 문학은 도덕적 당위를 지향하는 공적 지평에서 폐쇄적인 내면의 공간으로 ‘후퇴’했거나 억압적인 공적 지평에서 자유로운 내면의 공간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특히 ‘고문 피해자의 내면’이 지닌 ‘취약성’에의 민감한 감수성에서 말미암아 공적 지평으로 나아간 문학인 까닭이다.

371) 강소희(2018), 앞의 글, 155면.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김영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_____, 『해남 가는 길』, 솔, 1992.
_____,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작과비평사, 1995.
_____, 『내 마음의 망명정부』, 강, 1998.
_____, 『포도나무집 풍경』, 북폴리오, 2003.
_____, 『나쓰메 소세키를 읽는 밤』, 작가, 2007.
_____, 『라일락 향기』, 실천문학사, 2008.
_____, 『그래,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자고』, 사회평론, 2014,
_____,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 시간여행, 20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 『불교신문』, 『신동아』, 『주간경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겨레』 등

2. 국내 논저

-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 - 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 『한국학연구』, 56, 2020.
강소희, 「1980년대 한국소설에 재현된 주체의 정치성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비-동일성’의 민중을 기입하는 글쓰기 - 박태순의 르포와 기행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79, 2019.
고지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인문과학』, 93, 2011.
권성우, 「어느 신진소설가의 최근작에 대한 단상」, 『문학정신』, 1990.1.
_____, 「베를란·전노협, 그리고 김영현」, 『문학과사회』, 1990.2.
_____, 「김영현의 소설과 정남영의 비평문에 대한 열네 가지의 단상」,

- 『문학정신』, 1990.9.
- 권세훈, 「카프카 작품 『변신』의 한국적 수용 - 김영현의 『벌레』와 이윤택의 『사랑의 힘으로』」, 『카프카연구』, 6(1), 한국카프카학회, 1998.
- 김미라,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묵’ 모티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영찬, 「끝에서 바라본 한국근대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09.
- 김영현, 「변혁의 싹 품은 현실주의를 위하여」, 『한겨레』, 1990.8.25.
- _____, 「민족문학 평단에 대한 전면비판」, 『말』, 1990.11.
- _____, 「다시 ‘김영현 논쟁’을 돌아보며」, 『오늘의 문예비평』, 35, 1999.
- _____, 「〈인터뷰〉 리얼리즘 문학의 정통을 살려야 합니다 - 소설가 김영현, 그 이름이 갖는 묘한 울림」, 『말』, 2007.10.
- 김영현, 김종희, 우찬제, 「감금된 사회, 광기의 현실, 변혁적 작가」, 『문학정신』, 1990.9.
- 김정환, 「도래하지 않은 혁명의 유산들: 1991년 5월 투쟁의 현재성」, 『문화과학』, 66, 2011.
- _____, 『대중과 폭력』, 후마니타스, 2021.
- 김형중, 『변장한 유토피아』,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박현채, 『박현채 전집 2』, 도서출판 해밀, 2006.
-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 _____,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6(4), 1999.
- _____, 「왜 문학인가: 문학주의를 위한 변명」, 『문학동네』, 23, 2000.

-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6(4), 1999.
- 신수정, 이광호, 이성욱, 김미현, 황종연,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2, 2000.
- 손광명,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박현채와 조한혜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2015.
- 송명희, 「폭력과 아브제시옹 - 김영현과 오수연의 「별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61, 한국비평문학회, 2016.
-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58(4),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 유성호,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 -이승우와 김영현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24(1),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1.
- 이미영,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적인 것’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 이소영,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 - 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 _____,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사회』, 22, 2002
- 정남영, 「김영현 소설은 남한 문예운동의 미래인가, 과거인가」, 『노동해방문학』 복간호, 1990.6, 155면.
- _____, 「김영현의 문학관을 전면비판한다」, 『말』, 1990.12.
- _____, 「‘김영현 논쟁’의 결론 - 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중문학의 진로」, 『노동해방문학』, 1991.1,
-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81, 2018.
- 조운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 김영현, 박일문,

-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4, 2013.
- 최재봉, 「지식인적 고뇌에서 민중적 건강성으로」, 『문학동네』, 2(2), 1995.
- 한송희, 이하림, 「재현 불/가능성과 타자 윤리: 조르조 아감벤과 아즈마 히로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1), 2021.
- 홍승진, 「해방 전 임화 시의 문명 비평적 애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황광수, 「90년대의 징후와 두 소설집」, 『창작과비평』, 69, 1990.
-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 황종연, 진정석, 김동식, 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3. 국외 논저

-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 b, 2010.
-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김경식 옮김, 문예출판사, 2007.
- 발터 레제-쉐퍼, 「찰스 테일러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비판」, 서연호 옮김, 『서울대학교 법학』, 46(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태시 옮김, 제일출판사, 1969.
- 일레인 스캐리, 『고통받는 몸』, 메이 옮김, 오월의봄, 2018.
-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안미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12.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 _____,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 _____,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 _____, 『비폭력의 힘』,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

책들, 2020(개정판).

찰스 테일러, 『세속화와 현대문명』, 김선욱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3.

_____,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하주영 옮김, 새물결, 2015.

페넬로페 도이처, 『HOW TO READ 데리다』, 변성찬 옮김, 응진지식하우스, 2007.

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역, 돌베개, 2014.

Abstract

A study on Kim Yeong-hyeon's Literature

Byeon, Ha-ye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context in which Kim Yeong-hyeon's name is mentioned is extremely limited. It is the so-called 'Controversy on Kim Yeong-hyeon', which was triggered by Kwon Seong-woo's critical intention to newly signify the literature of the 90's by separation from that of the 80's in the coming new era. However, Kim Yeong-hyeon's literature, which was called by Kwon Seong-woo as a promising literature that will lead a new age, has rather degenerated into the literature that needs to be settled after the mid-1990s. This study sees that the cause of this situation is that Kim Yeong-hyeon's literature has been noted in terms of 'the inside of a failed progressive intellectual' and 'the ethics of sincerity'. Instead, if Kim Yeong-hyeon's novels are read through the lens of 'the inside of a victim of torture', his literature will acquire a new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ethics of vulnerability'.

In this article, the ‘vulnerability’ is a concept referred to in Judith Butler’s thoughts, and is primarily related to our ‘body’ that can be damaged and destroyed at any time. In that sense, Kim Yeong-hyeon’s experience of prison and torture,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corresponds to a kind of original experience related to vulnerability, and this left several traces throughout his literature. By following these traces, I focused on Kim Yeong-hyeon’s novel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mention experience of prison and torture in Chapter 2. In 2.1., the subject of analysis was 「Insect」, which vividly describes the pain in prison. I tried to argue that this novel is a fundamental text that summarizes Kim Yeong-hyeon’s literary world. By showing a ‘bare life’ that has fallen into the boundary between ‘human’ and ‘non-human’, this novel demonstrates the mechanism of the process of ‘unmaking’ and ‘making’. The former is the process of physical pain being dismantled in prison and the latter is achieved by rewriting this experience of pain into text. This implies that Kim Yeong-hyeon’s fiction writing is an ethical practice of continuing testimony between ‘the unspeakable’ and ‘the speakable’ and a ceaseless practice of restoring ‘making’ by overturning the process of ‘unmaking’.

In 2.2, I examined the novels as part of such practice, which depict the types of victims of torture who still suffer after coming out of prison. In particular, I paid attention to their ambivalent attitude towards prison and tried to trace the cause of their psychological state. Referring to the ‘Second War Syndrome’,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ined word ‘Military Dictatorship Syndrome’ proposed by Kim Yeong-hyeon, such an attitude seems to have resulted from two losses

experienced by those who came out of camps or prisons: the loss of ideals and the death of others. Judging from this, the ambivalent attitude shown by the victims of torture in Kim Yeong-hyeon's novel is actually just another expression of pain.

In Chapter 3, I tried to show that the experience of suffering provides a new ethical possibility to Kim Yeong-hyeon's novel. It is the ethical possibility of 'vulnerability' in the sense of Butler. First, in 3.1., I examined his novels in which the attitude of 'staying' appeared. The characters of Kim Yeong-hyeon's novels show the image of staying in the loss rather than trying to resolve it. Also, this affect of longing serves as the source of dynamism in pursuing utopia in his novels. In this way, the attitude of imagining a new community through staying in the sorrow of loss can be said to be the primary condition that enables the 'ethics of vulnerability'. Thus, the attitude of Kim Yeong-hyeon, which repeatedly fictionalizes his experiences of prison and torture, provides ethical possibilities for his literature.

In 3.2. and 3.3., I examined in detail how the 'ethics of vulnerability' is working in Kim Yeong-hyeon's novels. In 3.2., I pointed out that his novels, which drew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from beings that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single subject of 'laborer', expose the illusion of self-identity by causing cracks in violent identity. It leads to cognition of interdependence of human beings to realize the impossibility of perfect self-identit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ethics of vulnerability'. Lastly, in 3.3., I tried to show that Kim Yeong-hyeon is a writer who has a special interest in 'death', and his novel deals with the problem of 'mourning'. In particular, I examined the process of his novels starting from

exposing the violence inherent in the 'politics of martyrdom' to gradually moving toward the 'politics of mourning'. The issue of mourning is very important in practicing the 'ethics of vulnerability'. We can envision a non-violent community based on vulnerability(interdepend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qual mourning values.

In short, this study argues that Kim Yeong-hyeon's experience of prison and torture allowed him to have a keen sense of 'vulnerability', which provided ethical possibilities for his literature. This is the reason why his novels were able to go beyond the typical narrative of the movement group. As such, rereading Kim Yeong-hyeon's literature with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has meaning in two ways. At first, by paying attention to his identity as a 'victim of torture', it breaks away from the frame of 'the inside of a failed progressive intellectual' that has been constantly reproduced since the controversy on Kim Yeong-hyeon's novels was triggered. In addition, through this, Kim Yeong-hyeon's literature can be settled in a position that is free from the long-standing dichotomy of 'liberalism vs. nationalism' and '1980s literature vs. 1990s literature'. Kim Yeong-hyeon's literature did not 'retreat' from the public horizon oriented toward moral imperatives to a closed inner space or 'escape' from an oppressive public horizon to a free inner space, but rather moved from the inside to the public horizon. It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his sensitivity to the 'vulnerability' of the inside of 'victims of torture'.

Keywords : Kim Yeong-hyeon, Literature in the 1980s, Literature in the 1990s, Interiority, Victims of Torture, Prison, The Ethics

of Vulnerability, Loss, The Violence of Identity, Mourning
Student Number : 2021-28736